

韓國 初期靑磁에 있어서 해무리굽碗 問題의 再檢討

韓國 靑磁 製作의 開始時期 問題의 解決을 위하여

李 喜 寬*

- I. 問題의 提起: 再檢討의 출발점
- II. 해무리굽碗의 特質: 특히 越州窯의 玉璧底碗과의 比較를 중심으로
- III. 해무리굽碗의 展開
- IV. 이른바 '先해무리굽碗' 問題
- V. 해무리굽碗 등을 통하여 본 韓國 靑磁 製作의 開始時期
- VI. 맺음말: 韓國 靑磁 製作의 開始時期로서의 10世紀 2/4分期

I. 問題의 提起: 再檢討의 출발점

韓國의 청자와 관련된 문제들 가운데 과연 한국에서 언제부터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을까 하는 것만큼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난 것도 드물 것이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학술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열렸다거나,¹ 이에 대한 연구성과가 한국 의 청자와 관련된

* 湖林博物館 學藝室長

** 이 글은 2002년 6월 1일 제45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다른 어느 부분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² 사실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³를 밝히는 일은, 단지 한국에서 얼마나 이른 시기부터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는가 하는 의문을 푸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시기를 언제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한국 청자의 전개과정에 대한 이해의 구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까지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를 파악하는 데 직접적인 단서가 될 만한 紀年銘 자료는 발견된 바가 없다. 이로 말미암아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1970年代末 이래 학자에 따라 9世紀前半說로부터 10世紀後半說에 이르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다.⁴ 그렇지만 한 가지 의견이 일치되는 것은 이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해무리굽碗'이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의견의 일치에

-
- 1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단독 주제로 한 최초의 학술회의는 1990년 12월 1일-12월 2일에 열린 제1회 東垣기념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회에서는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라는 주제를 걸고 9명의 韓·日 학자들이 한국의 청자·백자 제작의 개시시기와 관련된 발표를 하였다(『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참조). 그 후 2000년 12월 2일에 열린 용인시사학술대회에서는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4명의 韓·日 학자들이 龍仁市 西里窯를 중심으로 한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용인시·용인문화원, 2000) 참조). 그밖에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만을 다룬 학술대회는 아니지만, 1990년 11월 14일-11월 15일에 열린 일본 東洋陶磁學會 제24회 대회와 1999년 8월 10일에 열린 강진청자 국제학술 세미나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된 韓·中·日 학자들의 여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2) 및 『강진청자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강진군, 1999) 참조).
 - 2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와 관련된 연구성과는 金英媛·鄭良謨·姜敬淑·崔健 등이 정리한 바가 있다(金英媛, 「高麗磁器와 中國磁器의 比較研究: 高麗時代 純靑磁와 中國陶磁의 比較」, 『考古美術』 171·172(韓國美術史學會, 1986), pp. 73-74; 鄭良謨, 「羅末·麗初 靑磁 및 白磁研究의 諸問題」,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pp. 8-9; 姜敬淑, 「우리나라 출토 해무리굽 중국도자」,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 학술대회 발표요지(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pp. 33-37; 崔健, 「高麗靑磁의 發生問題: 고려 청자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美術史論壇』 創刊號(한국미술연구소, 1995), pp. 284-293 참조). 이 가운데 각별히 崔健의 논문이 크게 참조된다.
 - 3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을 두고 '청자의 발생'이라는 말을 써왔다. 하지만 '청자의 발생'이란 엄밀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創案해냈을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자는 중국의 청자 제작기술을 직접 받아들여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심지어 중서부지방의 경우는 越州窯의 陶工들이 직접 이주해옴으로써 비로소 청자와 백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李喜寬, 「始興 芳山大窯의 生産集團과 開始時期 問題: 芳山大窯 出土 銘文資料의 檢討」, 『新羅 金石文의 현황과 과제』 新羅文化祭學術論文集 23(慶州市·新羅文化宣揚會·東國大 新羅文化研究所, 2002), pp. 248-256).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청자의 발생'이라는 말을 쓰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이를 두고 '청자 제작의 개시'라는 말을 쓰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4 註2 참조.

도 불구하고 학자에 따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가 1세기 이상의 격차를 보여온 것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학자들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해무리굽의 源流인 중국의 玉璧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였다는 점에 그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92년 중국과의 修交로 중국의 玉璧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해무리굽碗을 생산한 많은 窯址들이 조사·발굴되어 해무리굽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9世紀前半說⁵과 10世紀後半說⁶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양측의 학자들이 최근까지도 종래 각자의 주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9世紀前半說과 10世紀後半說이, 玉璧底에 대한 연구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아울러 해무리굽에 대한

-
- ⁵ 9세기전반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吉岡完祐·金載悅·崔健 등이다(吉岡完祐, 『韓國靑磁의 發生에 關한 研究』(崇田大學校 博物館, 1979); 同著, 「高麗靑磁의 出現」, 『張寶阜 大使 海洋經營史』(張寶阜 大使 海洋經營史 研究會·中央大學校 東北亞研究所, 1992); 同著, 「월주요갈래 청자의 형태 분류를 통해 본 고려 청자의 분석」, 손보기 엮음, 『장보고와 청해진』(도서출판 혜안, 1996); 同著, 「越州窯系靑磁의 形態分類에서 본 高麗靑磁와의 比較」, 『강진청자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강진군, 1999); 金載悅, 「高麗白磁의 發生과 編年」, 『考古美術』 177(韓國美術史學會, 1988); 同著, 「龍仁 初期 白磁窯址發掘調査報告」,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제1회 東垣기념학술대회 발표요지(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同著, 「龍仁 西里 고려백자요지 발굴조사 내용 및 의의」, 『고려시대의 용인』(용인시·용인문화원, 1998); 崔健, 「韓國 靑磁 發生에 關한 背景의 考察」, 『古文化』 31(韓國大學博物館協會, 1987); 同著, 「韓國初期靑磁의 分類と 變遷: 窯址出土品を中心に」,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同著, 「羅末麗初 韓國 磁窯의 系列과 變遷: 특히 9-10세기 磁窯의 興亡盛衰를 중심으로」,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제2회 용인시사학술대회 발표요지문(용인시·용인문화원, 2000) 참조. 한편, 金英媛도 龍仁市 西里窯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하여, 어느 정도 유보적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9세기전반설의 입장에서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金英媛, 「통일신라시대 한중교역과 자기의 출현」, 손보기 엮음, 앞의 책; 同著, 「統一新羅時代 鉛釉의 發達과 磁器의 出現」, 『美術資料』 62(國立中央博物館, 1999); 同著, 「韓國陶磁의 發生과 中國陶磁의 影響」, 『광동성박물관소장: 중국역대도자전』(경기도박물관, 2000) 참조).
- ⁶ 10세기후반설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尹龍二이다(尹龍二, 「高麗陶磁의 變遷」, 『潤松文華』 31(韓國民族美術研究所, 1986); 同著,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同著, 「高麗靑瓷의 起源과 發展」, 『韓國美術史의 現況』(圖書出版 藝耕, 1992); 同著, 『韓國陶磁史研究』(文藝出版社, 1993); 同著, 「高麗靑瓷의 起源」,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同著, 「韓國靑瓷의 成立に關する一考察」, 『高麗美術館館報』 50(財團法人高麗美術館, 2001) 참조. 한편, 西谷正도 주로 일본에서 출토된 초기청자를 토대로 한국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을 10세기 후반의 일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다(西谷正, 「韓國陶磁と日本の交流諸問題」, 『東洋陶磁』 25(東洋陶磁學會, 1996), pp. 56-58).

연구가 크게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오랫동안 평행선을 달러오게 된 원인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서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한 연구의 중요한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9世紀前半說과 10世紀後半說이 오랜 기간 동안 대립되어 온 원인에 대한 검토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그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해무리굽의 源流로서의 玉璧底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해무리굽과 玉璧底의 形式的 비교·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토대 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두 견해에서는 막연히 해무리굽과 玉璧底를 전혀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玉璧底의 전개 과정에 대한 중국에서의 최근의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출토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해무리굽 가운데 玉璧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경향이 짙다.⁷ 이러한 문제점은 해무리굽과 玉璧底의 체계적인 비교·검토의 미흡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여기에서부터 이미 두 견해는 평행선을 달릴 소지를 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또 다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龍仁市 西里窯에서 출토된 이른바 '先해무리굽'에 대한 이해의 다름이다.⁸ 西里窯의 퇴적층에서는 4개의 自然層位가 확인되었는데, 가장 아래층에서는 굽폭이 일반적인 해무리굽의 그것보다 좁은—대략 0.5-0.8cm 정도—굽을 가진 靑磁·白磁碗片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그 위층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靑磁·白磁碗片이 해무리굽을 가진 그것들과 함께 출토되었다. 두 견해에서는 모두 해무리굽碗이 출토된 층보다 아래층에서 출토된 碗에 보이는, 굽폭이 해무리굽의 그것보다 좁은 굽을 '先해무리굽'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先해무리굽'을 가진 碗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청자—백자를 포함하여—로 파악한다. 그러나 이들의 제작시기에 대한 이해는 판이하다. 즉 9世紀前半說에서는 그보다 위층에서 출토되는 碗에 보이는 해무리굽을 중국의 玉璧底와 동일한 유형의 굽으로 파악하고, 그 玉璧底가 9세기 후반에 소멸됨으로 그와 동일한 유형인 해무리굽보다 앞선 '先해무리굽'을 가진 碗은 9세기 전반경에는 제작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⁹ 반면에 10世紀後半說에서는 문제의 '先해무리굽'을 10세기 말-11세기 초기까지

7 林士民, 「對韓半島高麗靑瓷之研究」(未發表)의 제4장 越窯與高麗靑瓷之交融 참조.

8 龍仁市 西里窯의 유물 출토 상황과 '先해무리굽'에 대해서는 金載悅, 앞의 글(1990), pp. 49-52; 同著, 앞의 글(1998), pp. 215-229; 田勝昌, 「龍仁 西里窯址 出土遺物の 檢討」,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의 재조명』 제2회 용인시사학술대회 발표요지문(용인시·용인문화원, 2000), pp. 11-18을 참조.

운영된 白川郡 圓山里窯의 碗의 굽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先해무리굽碗'이 제작되기 시작한 것을 10세기 후반경의 일로서 파악한다.¹⁰ 그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것으로 간주한 해무리굽碗은 11세기에 접어든 이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해무리굽과 玉璧底의 관계에 대한 소박한 이해에서 출발한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한 9세기전반설과 10세기후반설의 대립은 西里窯의 발굴 이후에 오히려 더욱 첨예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97-1998년에 있었던, 또 다른 初期靑磁窯인 始興市 '芳山大窯'의 발굴 이후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9세기전반설과 10세기후반설이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의 접근을 보지 못한 주요 원인이 해무리굽과 玉璧底, 그리고 양자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미흡함과 西里窯에서 출토된 '先해무리굽碗'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다면, 결국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한 더욱 진전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해무리굽碗- '先해무리굽碗'을 포함하여-이 쥐고 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본고에서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무리굽碗의 문제를 재검토해 보고자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무리굽碗의 특질과 전개과정을, 각별히 월주요의 玉璧底碗과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추적해보겠다. 둘째, 이른바 '先해무리굽碗'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9세기전반설과 10세기후반설 모두가 안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마지막으로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겠다. 본고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한국 초기청자에 대한 연구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⁹ 金載悅, 앞의 글(1988), pp. 11-12; 同著, 앞의 글(1990), p. 53; 同著, 앞의 글(1998), pp. 224-231 참조. 단 金載悅은 앞의 두 논문에서는 이른바 '先해무리굽碗'이 처음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를 '9세기 전반'으로 넓게 보았으나, 마지막 논문에서는 그 시기를 '9세기 전반의 늦은 시기' 또는 '9세기 전반 말엽경'으로 한층 더 한정하였다.

¹⁰ 尹龍二, 앞의 글(2001), pp. 13-14.

II. 해무리굽碗의 特質: 특히 越州窯의 玉璧底碗과의 비교를 중심으로¹¹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학계에서는 이제까지 별다른 의심 없이 우리나라 初期靑磁의 가장 중요한 표식 가운데 하나인 해무리굽을 중국의 唐代에 유행한 玉璧底와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 점은 일본 학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兩者는 굽폭이 일반적인 輪形底—圈足—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넓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 굽폭뿐만 아니라 그러한 굽을 가진 碗들의 器形이나 製作技法 그리고 燻法 등에 있어서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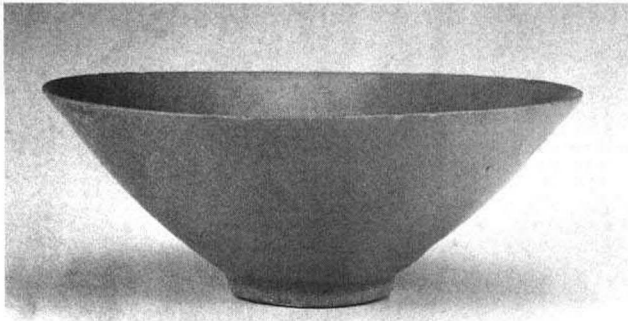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초기청자의 해무리굽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대부분이 특정한 기형의 碗에서만 보인다는 점이다. 그 碗은 側面線이 직선이거나 직선에 가까운, 마치 샷갓을 엮어놓은 듯한, 이른바 斗笠形碗—또는 斗笠碗·倒笠碗—이다¹². 반면에 중국의 玉璧底의 경우는 그러한 굽을 가지는 器種이 훨씬 다양하다. 그 주류를 이루고 있는 碗 이외에도 鉢·皿·唾壺·罐(壺)·盂·蝶·盤·盒 등에서 玉璧底가 확인되었다¹³. 우리나라의 해무리굽碗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越州窯의 玉璧底碗의 경우도 斗笠形碗뿐만 아니라,¹⁴ 몸통부분이 팽배하여 전체적인 모양이 승려들의 鉢을 연상하게 하

¹¹ 이 章은 2002년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중국 浙江省考古文物研究所 주최로 杭州에서 열린 '2002年越窯國際學術討論會'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李喜寬, 「韓國早期靑瓷中出現的日暈底碗的特點: 以與越窯玉璧底碗的比較爲中心」,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제5집 2002越窯國際學術討論會專輯(杭州出版社, 200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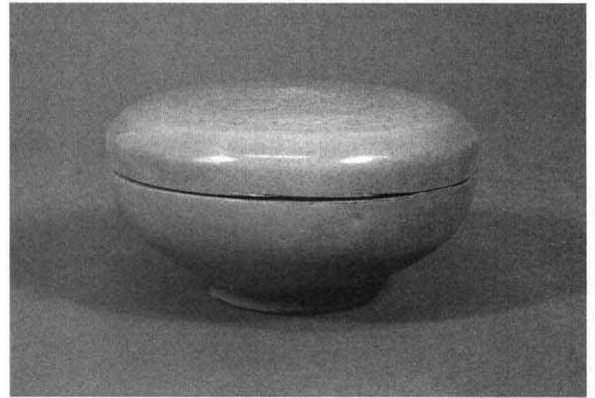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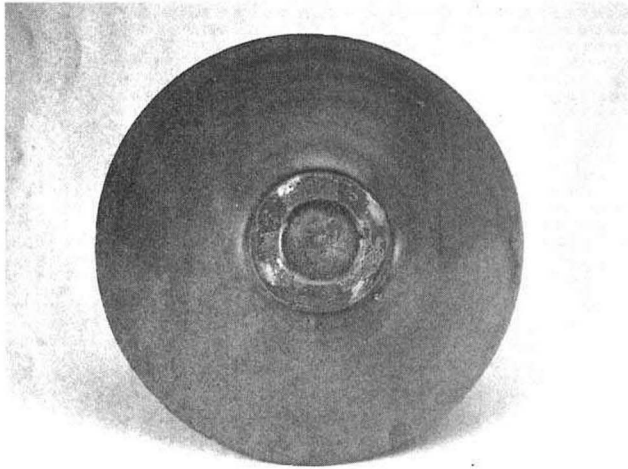
¹² 斗笠形碗에 대해서는 水上和則, 「宋代茶碗考: 遼墓出土의 斗笠形靑磁碗について」, 高橋忠彥 編, 『東洋の茶』(淡交社, 2000)를 참조. 한편, 중국이나 일본의 학계에서는 측면선이 직선인 것만을 斗笠形碗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측면선이 반드시 직선은 아니더라도 직선에 가까운 것은 斗笠形碗의 범주에 넣어서 이해하였다.

¹³ 龜井明德, 「唐代玉璧高臺의 出現と消滅時期の考察」, 『貿易陶磁研究』 13(日本貿易陶磁研究會, 1993), p. 86; 周世英, 「長沙唐墓出土瓷器研究」, 『考古學報』 1982년 제4기, pp. 510-511; 全錦雲, 「武昌唐墓所見銅官窯瓷器及其相關問題」, 『考古』 1986년 제12기(科學出版社, 1986), pp. 1127-11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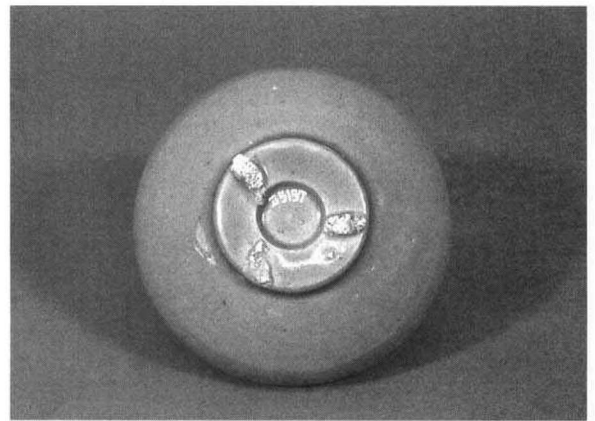
¹⁴ 이제까지 중국의 학계에서는 샷갓 모양의 碗 가운데 唐代에 제작된 玉璧底碗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斗笠形碗으로 稱하지 않았다. 즉 斗笠形碗은 주로 五代 이후에 제작된 그러한 모양의 碗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 왔다. 그러나 샷갓 모양의 玉璧底碗도 비록 세부적으로는 五代 이후의 斗笠形碗들과 약간 다른 면이 있지만, 전체적인 모양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필자는 그러한 모양의 玉璧底碗도 斗笠形碗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좋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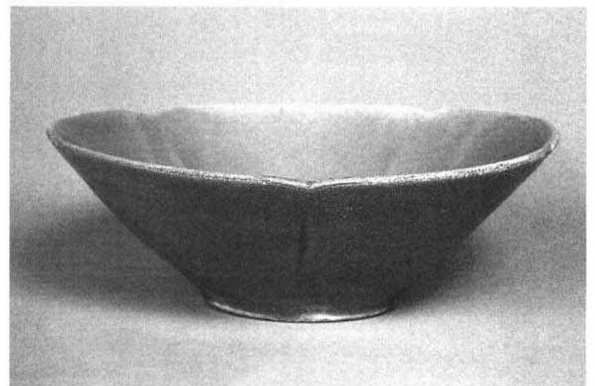
도 1 靑磁해무리굽碗, 海剛陶磁美術館



도 2 靑磁陰刻花文玉璧底盒, 唐 9세기, 湖林博物館



도 3 靑磁玉璧底碗, 唐 9세기,
浙江省 寧波市 和義路 출토, 寧波市博物館



도 4 靑磁花形玉璧底碗, 唐 9세기,
益山市 彌勒寺址 출토, 彌勒寺址遺物展示館

는 것과도^{3, 15} 斗笠形碗의 형태를 띠면서 구연부가 약간 外反되거나¹⁶ 구연부와 몸통이 花形으로 장식된 것들도 있다^{4, 17} 하지만 玉璧底의 경우도 그 소멸기에 다가갈수록 해무리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斗笠形碗에서 주로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해무리굽碗의 경우 側斜面의 경사가 한결 같지는 않지만, 동일한 유형의 玉璧底碗—斗笠形의 玉璧底碗—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급한 것이 일반적이다.¹⁸ 그리고 그에 따라 운두—그릇의 높이—는 玉璧底碗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底徑은 작은 편이다. 이는 燔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포개구이(疊燒)를 할 경우는 쌓은 그릇들이 굽는 과정에서 서로 쉽게 달라붙지 않도록 측사면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고, 쌓은 그릇이 넘어지지 않도록 底徑을 되도록 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¹⁹ 반면에 그릇을 포개지 않고 한 개씩 구울 때는 그럴 염려가 없거나 적어지므로 굳이 側斜面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거나 底徑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 해무리굽碗이 玉璧底碗과 비교하여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포개구이의 빈도가 낮았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서부지방 최대의 해무리굽靑磁碗의 생산지였던 康津郡 龍雲里窯와 三興里窯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일부 해무리굽碗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해무리굽碗이 예외 없이 한 개씩 匣鉢에 넣어서 구워낸 것들이다. 하지만 玉璧底碗의 경우도 포개구이를 止揚해감에 따라 점차 側斜面의 경사가 급해지고 底徑도 작아지며 운두도 높아져 간 것으로 판단된다.²⁰ 晚唐 後期 이후의 斗笠

15 『中國陶瓷全集』5 隋唐(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p. 151의 圖版 156과 p. 267의 도판해설(林士民 집필) 참조. 이러한 유형의 玉璧底碗은 보통 口徑이 12-13cm 정도이거나 그 未滿으로碗 가운데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는데, 河北省 臨城縣의 劉府君墓(編號85LDM1-1)에서 출토된 例로 미루어 보면, 일반적으로 托과 一條를 이루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李振奇 外, 「河北臨城七座唐墓」, 『文物』1990년 제5기(文物出版社, 1990), pp. 21-22 참조).

16 南京市文物保管委員會, 「南京錢家渡丁山發現唐墓」, 『考古』1966년 제4기(科學出版社, 1966), p. 228 圖2의 2번 유물, 林士民, 『靑瓷與越窯』(上海古籍出版社, 1999), p. 171 圖4의 23번 유물 참조.

17 『동북아도자교류전』(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2001), 도판 6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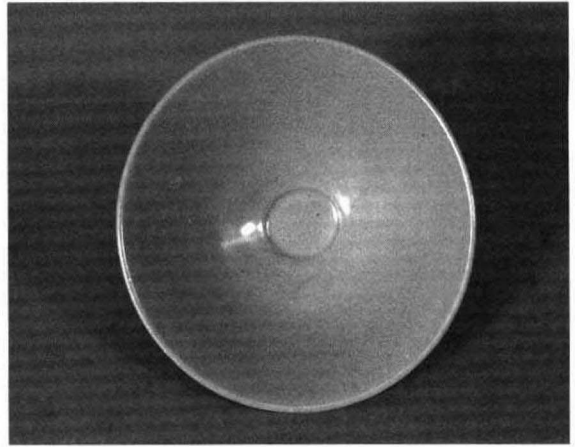
18 한국의 해무리굽碗과 유사한 기형을 가지는 월주요의 玉璧底碗은 斗笠形의 그것이다. 그러므로 기형 등의 측면에서 해무리굽碗의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것에 한정된다.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 없이 '玉璧底碗'이라고 할 경우, 이는 斗笠形 玉璧底碗을 가리킨다. 이는 뒤에서 언급할 玉環底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 劉新園, 「景德鎮湖田窯各期典型碗類的造型特徵及其成因考」, 『文物』1980년 제11기(文物出版社, 1980), p. 50 참조.

20 鄭建華, 「越窯靑瓷裝燒工藝的初步總結」, 『東方博物』 제2집(杭州大學出版社, 1998), p. 91; 張福康, 『中國古陶瓷的科學』(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p. 48 참조. 그런데碗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월주요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五代-北宋代의 景德鎮 湖田窯의 경우도 그러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劉新園, 앞의 글, pp. 50-51 참조).



도 5 靑磁玉璧底碗의 內底面,
唐 8-9세기, 慈溪市 石馬弄窯址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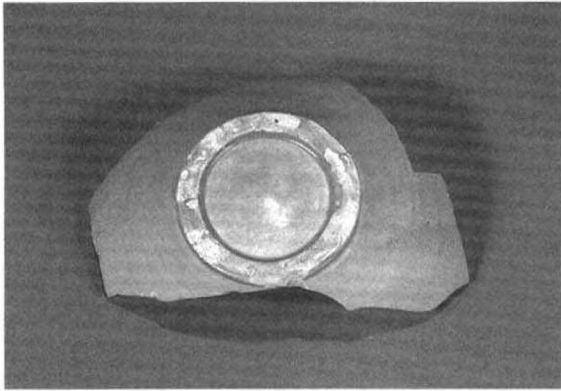


도 6 靑磁해무리굽碗의 內底圓刻, 湖林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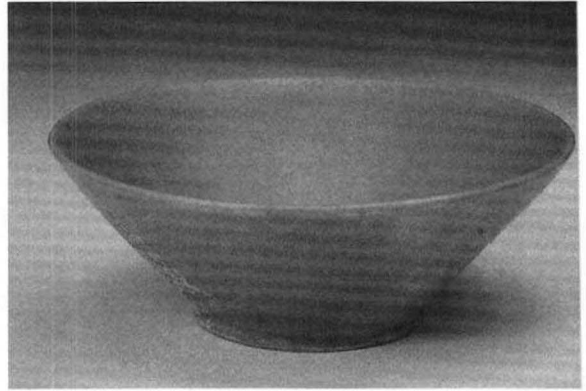
形碗들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해무리굽碗의 특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內底圓刻의 문제이다. 현재 까지 월주요의 玉璧底碗의 경우는 內底圓刻이 있는 것이 정식으로 보고된 예가 없다.²¹ 즉 이제까지 확인된 玉璧底碗들은 모두 內底面에 圓刻이 없이 완만한 曲面으로 되어 있는 이른바 內底曲面式碗들이다 도5. 이에 반해 해무리굽碗의 경우에는 內底圓刻이 있는 경우가 많

²¹ 다만,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의 朱伯謙 教授가 “玉璧底碗의 內底에는 대부분 圓刻이 없지만, 圓刻이 있는 4건의 破편을 조사한 바가 있다”고 大阪市立東洋陶磁美術館의 伊藤郁太郎 館長과의 便紙에서 말하였다고 한다(伊藤郁太郎, 「高麗靑磁をめぐる諸問題: 編年論を中心」, 『東洋陶磁』 22(東洋陶磁學會, 1994), p. 16의 註16 참조). 하지만 여기에서는 단지 朱 教授가 圓刻이 있는 玉璧底碗을 조사한 바가 있다는 사실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청자인지 백자인지, 또는 어느窯에서 제작된 것인지, 그 圓刻이 우리가 龍雲里窯를 비롯한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과 같은 유형인지 알 길이 없다. 한편, 월주요의窯址를 누구보다도 폭넓게 조사한 寧波市文物考古研究所의 林士民 教授의 말에 따르면, 이제까지 월주요의窯址에서 圓刻이 있는 玉璧底碗은 발견된 바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대해서 필자가 무엇이라고 언급하기가 힘든 형편이지만, 朱 教授가 圓刻이 있는 4건의 玉璧底碗 破편을 조사한 것이 분명하다면, 혹 그것이 5-6세기경 南朝時代에 寧波市 雲湖窯 등에서 제작한 여러 종류의 假圈足碗의 內底面의 중앙에 蓮瓣文의 일부분으로서 圓圈을 음각한 것과 같은 유형이 아닐까 추측되기도 한다(周瑞燕 外, 「浙江奉化縣南梁墓」, 『考古』 1984년 제9기(科學出版社, 1984), p. 856; 林士民, 「浙江寧波雲湖窯調查」, 『中國古代窯址調查發掘報告書』(文物出版社, 1984), pp. 10-11 참조). 그렇지만 이 圓刻은 문양의 일부분일 뿐 우리나라의 해무리굽碗에 보이는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도7 靑磁玉環底碗, 唐-五代 9-10세기,
慈溪市 馬溪灘窯址 출토



도8 靑磁玉環底碗, 五代 939년,
臨安市 康陵 출토, 臨安市文物管理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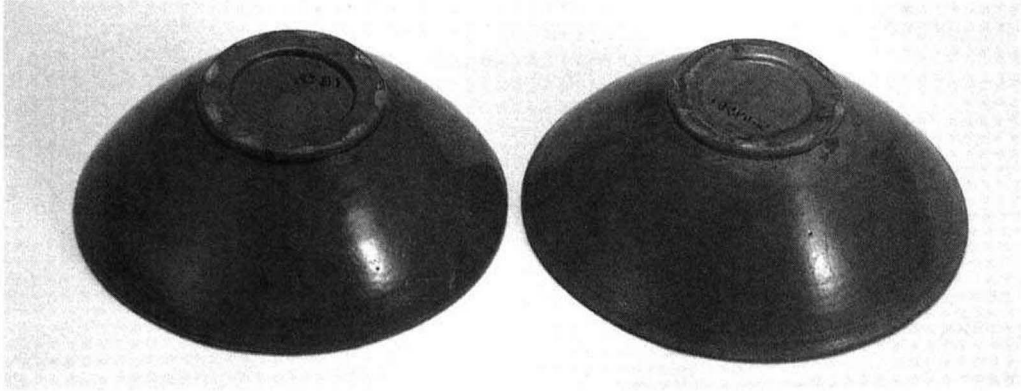
다도6. 이러한 경향은 중서부지방보다는 남서부지방의 靑磁窯에서 제작된 해무리굽碗의 경우 더욱 현저하여, 이른 시기에 제작된 일부 해무리굽碗만이 內底曲面式일뿐, 대부분의 해무리굽碗들은 모두 內底圓刻을 가지고 있다.²² 말하자면 內底圓刻은 玉璧底碗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해무리굽碗만의 특질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해무리굽碗의 가장 큰 특징은 굽의 폭이 일반적인 輪形底碗의 경우보다 넓다는 점일 것이다. 이 점은 玉璧底碗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굽폭이 어느 정도 넓어야 玉璧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일치된 견해가 없지만, 대체로 굽폭이 底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도 40%—실제의 굽폭은 그 반인 20%—이상이면 玉璧底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²³ 그러니까 대체로 굽폭을 底徑으로 나눈 값(굽폭/저경)이 0.20 이상이면, 玉璧底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그런데 월주요에서 晚唐-五代에 제작된 碗들의 굽을 잘 살펴보면, 굽폭/저경의 값이 0.15를 전후한, 굽폭을 기준으로 보면 玉璧底와 輪形底(圈足)의 중간에 속하는 것들이 많다 도7. 이러한 굽을 가진 碗들의 대부분은 斗笠形碗이다 도8. 일본의 학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굽을 막연히 경우에 따라서 玉璧底 또는 輪形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왔으나, 중

²² 鄭良謨, 「高麗靑磁」, 國立中央博物館 編, 『高麗靑磁名品特別展』(通川文化史, 1989): 同著, 『韓國의 陶磁器』(文藝出版社, 1991), pp. 180-184; 崔健, 앞의 글(1994), pp. 45-50 참조.

²³ 龜井明德, 앞의 글, p. 86 참조.



도 9 青磁玉環底碗, 唐-五代 9-10세기, 夫餘郡 扶蘇山 출토, 國立夫餘博物館

국의 학계에서는 이를 양자와 구분하여 玉環底로 부르며,²⁴ 월주요에서 제작된 일반적인 斗笠形碗의 경우 玉璧底에 뒤이어 五代 前期에 크게 유행한 한 특징적인 굽 형식으로 이해하고 있다.²⁵ 말하자면 玉環底를 玉璧底와 輪形底 사이의 과도기적인 굽 형식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월주요에서 제작된 이러한 青磁玉環底碗은 국내의 夫餘郡 扶蘇山에서도 여러 점 출토된 바가 있다.²⁶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해무리굽碗의 굽폭의 특징은 保寧市 聖住寺址에서 출토된 그것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 聖住寺址에서는 굽폭과 그 밖의 속성의 관찰이 가능한 54개의 해무리굽碗片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다.²⁷ 그런데 그것들의 굽폭/저경의 값은 편차가 매우 크

²⁴ 河北臨城邢窑研制小組(楊文山·林玉山 執筆), 「唐代邢窑遺址調查報告」, 『文物』 1981년 제9기(文物出版社, 1981), p. 39 참조.

²⁵ 謝純龍, 「上林湖地區的青瓷分期」, 『東方博物』 제4집(浙江大學出版社, 1999), p. 92; 林士民·俞敏敏, 「上林湖窯場杜湖窯區調查與研究」, 『東方博物』 제2집(杭州大學出版社, 1998), pp. 320-321; 林士民, 앞의 글(未刊行)의 제3장 關於韓國“玉璧底”年代問題와 제4장 越窯與高麗青瓷의 交融;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鄭嘉勳 執筆), 「浙江慈溪市越窯石馬弄窯址的發掘」, 『考古』 2001년 제10기(考古雜誌社, 2001), p. 71; 慈溪市博物館 編, 『上林湖越窯』(科學出版社, 2002), p. 1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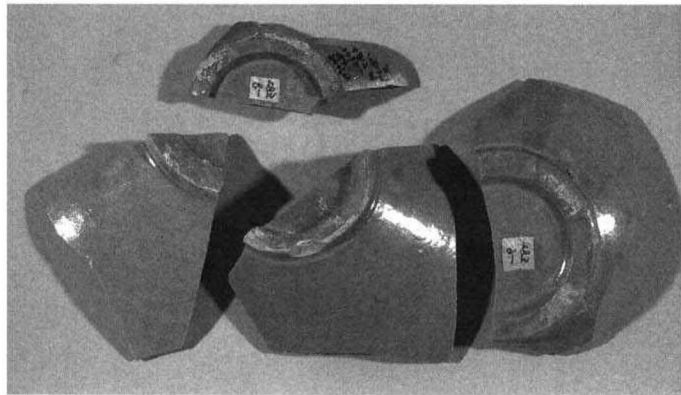
²⁶ 李蘭暎, 「扶蘇山 出土 一括遺物の 再檢討: 그 年代를 중심으로」, 『美術資料』 20(國立中央博物館, 1977), p. 6; 三上次男, 「朝鮮半島出土의 中國唐代陶磁とその史的意義」, 『朝鮮學報』 87(朝鮮學會, 1978); 同著, 『陶磁貿易史研究』 上(中央公論美術出版, 1987), pp. 147-148 및 pp. 158-159; 國立扶餘博物館, 『국립부여박물관』(三和出版社, 1993), p. 122의 도판 참조.

²⁷ 朴淳發, 「土器·磁器」, 『聖住寺』(保寧市·忠南大學校博物館, 1998), pp. 493-503 및 pp. 547-556 참조.

다. 즉 굽폭/저경의 값이 0.10에 가까워 輪形底를 연상시키는 굽으로부터 그 값이 0.28에 이르러 굽폭/저경의 값으로만 보면 완전한 玉璧底의 범주에 속하는 굽까지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表 1 참조).

표 1 聖住寺址 出土 해무리굽碗의 굽폭/底徑의 값의 現況²⁸

구분	일련번호	굽폭(cm)	저경(cm)	굽폭/저경	구분	일련번호	굽폭(cm)	저경(cm)	굽폭/저경
內 底 曲 面 式	1	1.3	6.0	0.22	內 底 圓 刻 式	28	1.1	5.3	0.21
	2	1.1	5.7	0.19		30	1.1	5.3	0.21
	3	1.0	6.6	0.15		30	1.1	5.3	0.21
	4	1.0	6.1	0.16		31	1.1	5.2	0.21
	5	0.9	5.6	0.16		32	1.1	5.2	0.21
	6	0.8	6.2	0.13		33	1.1	5.0	0.22
	7	0.8	5.8	0.14		34	1.0	5.8	0.19
	8	0.7	5.4	0.13		35	1.0	5.8	0.19
	9	0.7	6.4	0.11		36	1.0	5.7	0.18
	10	0.6	5.2	0.12		37	1.0	5.4	0.18
內 底 圓 刻 式	11	1.6	6.0	0.27		38	1.0	5.2	0.19
	12	1.5	5.9	0.25		39	1.0	5.0	0.20
	13	1.4	6.4	0.22		40	1.0	4.8	0.21
	14	1.3	6.2	0.21		41	1.0	4.5	0.22
	15	1.3	5.8	0.22		42	1.0	4.3	0.23
	16	1.3	5.8	0.22		43	0.9	5.5	0.16
	17	1.3	5.6	0.23		44	0.9	5.1	0.18
	18	1.3	8	0.27		45	0.9	4.9	0.18
	19	1.3	4.6	0.28		46	0.9	4.8	0.19
	20	1.2	6.4	0.19		47	0.9	4.6	0.17
	21	1.2	6.0	0.20		48	0.8	4.4	0.18
	22	1.2	6.0	0.20		49	0.8	4.0	0.20
	23	1.1	6.0	0.18		50	0.7	5.0	0.14
	24	1.1	5.8	0.19		51	0.6	4.8	0.12
	25	1.1	5.8	0.19		52	9.5	3.7	0.14
	26	1.1	5.6	0.20		53	?	4.8	
	27	1.1	5.4	0.20		54	1.0	?	



도 10
 靑磁內底曲面式해무리굽碗,
 保寧市 聖住寺址 출토,
 忠南大學校 博物館

그런데 이러한 굽폭의 상황은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인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인가에 따라 확연히 구분된다. 즉 일반적으로 후자가 전자에 비해 굽폭/저경의 값이 훨씬 작은 편이다. 聖住寺址에서는 총 10례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片이 출토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도 10,²⁹ 그 가운데에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에서 여러 예가 확인된 굽폭/저경의 값이

²⁸ 朴淳發, 앞의 글, pp. 549-550의 <표 39>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²⁹ 朴淳發은 聖住寺址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片이 총 10례가 출토된 것으로 보고하였다(朴淳發, 앞의 글, pp. 494-496). 그런데 이 碗片들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필자는 그 가운데 일부는 국내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월주요에서 제작된 玉環底碗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제작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과, 같은 시기에 월주요에서 제작된 玉環底碗을 판별하기는 매우 힘들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뒤로 미루고 여기서는 일단 보고자의 견해에 따라 10점 모두를 국내에서 제작한 해무리굽碗으로 간주하였다.

0.25를 상회하는 예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 값이 0.20을 전후하여 玉璧底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전체의 20%에 불과한 2例뿐이다(〈表 1〉의 일련번호 1·2). 이러한 굽폭/저경의 값을 갖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들은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白磁窯에서는 거의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인 高興郡 雲岱里 第1號窯, 康津郡 龍雲里 第9號窯·第63號窯 및 三興里 第2號窯·第3號窯 등에서 드물게 발견될 뿐이다.³⁰ 이 두 예도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³¹ 聖住寺址에서 출토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의 대부분은 굽폭/저경의 값이 0.20 미만의 것들이다. 전체 출토 예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8例의 굽폭/저경의 값이 0.11-0.16이다. 이러한 굽폭/저경의 값은 월주요의 玉環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白磁窯에서 출토되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의 대부분이 그러한 크기의 굽폭/저경의 값을 갖는다. 요컨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의 대부분은 玉環底碗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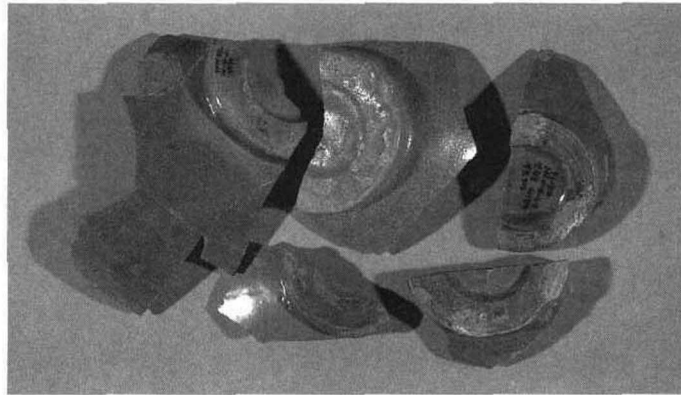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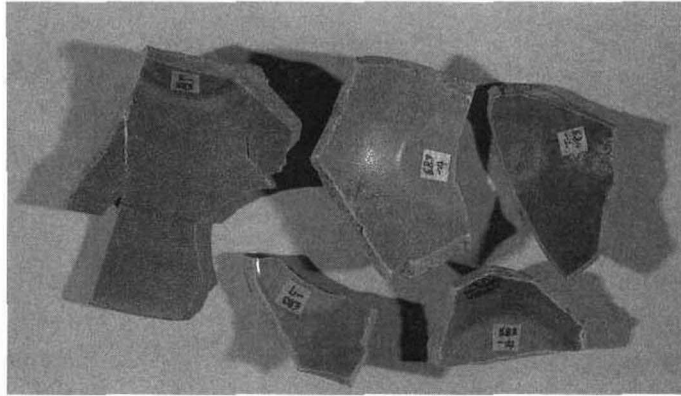
이에 반해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경우는 그 대부분식이 굽폭/저경의 값이 0.20을 전후한 玉璧底碗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고, 심지어 그 값이 玉璧底碗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굽폭이 넓은 편에 속하는 0.25 이상인 것들도 여러 점 있다.³² 이러한 경향은 전국의 初期靑磁·白磁窯에서 출토되는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³²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볼 때,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해무리굽碗 가운데 적어도 굽폭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은 월주요의 玉璧底碗과,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은 玉環底碗과 깊은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경우 굽폭 이외의 측면, 즉 제작기법이나 燻法이나 기형 등에 있어서는 玉璧底碗과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후자의 경우와 달리 內底圓刻이 있다는 점 이외에도, 포개구이(疊燒)를 한 예가 거의 없다는 점과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두가

³⁰ 예컨대 강대규, 『고흥 운대리』(국립광주박물관, 1991), p. 108 〈사진 3〉의 ③과 〈사진 4〉의 ② 유물; 崔健 外, 『康津의 靑磁窯址』(海剛陶磁美術館·全羅南道·康津郡, 1992), p. 60의 ⑦·⑫ 유물, p. 159의 ⑧·⑨ 유물, p. 357의 ⑨ 유물, p. 359의 ③·④ 유물 참조.

³¹ 보고서에서는 이 두 예의 釉色을 올리브 그린(olive green)색 계열이라고 했으나(朴淳發, 앞의 글, p. 494), 잘 살펴보면 唐·五代의 월주요나 우리나라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출토되는 靑磁片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 그린색 계열의 유색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두 예 가운데 한 예(〈表 1〉의 일련번호 1)가 비록 2次酸化로 열은 黃褐色 기운이 감돌기는 하지만, 두 예의 유색은 모두 남서부지방의 窯에서 제작된 초기청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翡翠色 계열로 파악된다. 이 점도 이 두 예가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³²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굽폭의 현황과 변화에 대해서는 崔健, 앞의 글(1994), p. 45 참조.



도 11
 靑磁內底圓刻式해무리굽碗.
 保寧市 聖住寺址 출토,
 忠南大學校 博物館

높고 底徑이 작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하기는 玉環底碗과 비교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玉環底碗의 경우도 內底圓刻이 없으며,³³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경우보다 저경이 큰 반면 굽폭/저경의 값은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형·제작기법·燜法 등의 측면에서 월주요의 玉璧底碗이나 玉環底碗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다.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의 경우 玉璧底

³³ 월주요 청자의 경우 盤이나 몸통이 팽배한 鉢 형태의 小碗 등에서는 이미 六朝時代에 內底圓刻이 있는 것들이 확인되나, 斗笠形碗의 경우는 玉璧底와 玉環底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는 圓刻이 있는 것들이 확인되지 않고, 輪形底를 가진 것들에서 비로소 圓刻이 확인된다(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上虞縣文物管理所(胡繼根 執筆), 『浙江上虞鳳凰山古墓葬發掘報告』,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學刊』 建所十周年紀念號(科學出版社, 1993), pp. 227-232 및 p. 236 참조).

碗이나 玉環底碗과 같이 內底面이 曲面을 이루고, 종종 포개구이를 하였다는 점이나, 저경 및 운두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유사성이 看取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하지만 굽쪽의 측면에서 볼 때, 玉璧底碗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드물게 발견될 뿐이며, 그 대부분은 玉環底碗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요컨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은 기형·제작기법·燻法·굽쪽 등 전반적인 면에서 월주요의 玉環底碗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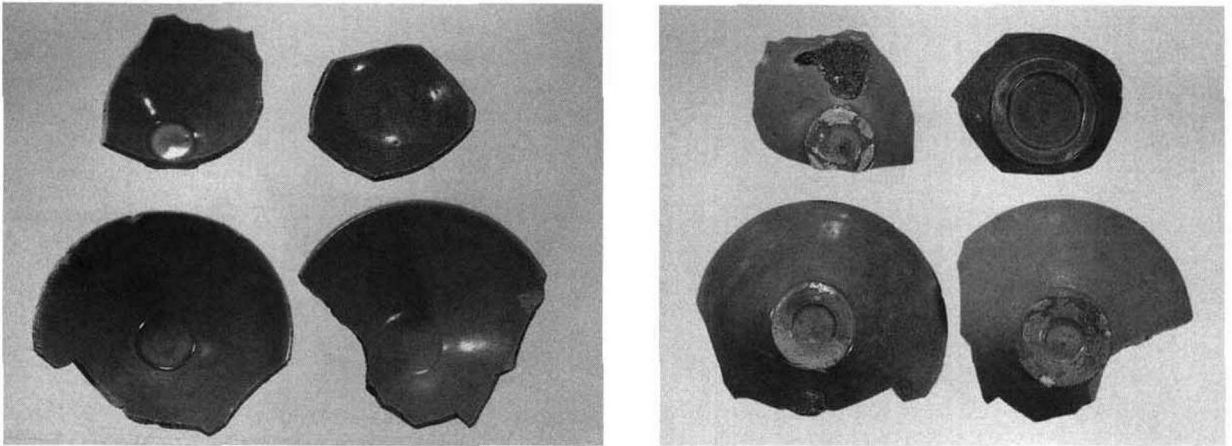
그러면 이러한 특질을 갖는 해무리굽碗은 어떻게 전개되어간 것일까. 이제 장을 바꾸어 이 점에 관심을 기울여봄으로서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의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로 하자.

III. 해무리굽碗의 展開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무리굽碗의 특질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內底面의 처리방식과 굽쪽의 경우가 그것의 성격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을 각별히 이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에 대한 검토야말로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해무리굽碗의 전개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론이 없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해무리굽碗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면서 內底曲面式碗에서 內底圓刻式碗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점이다.³⁴ 이 점은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남서부지방에서는 長興郡 豐吉里窯, 高興郡 雲垌里窯, 康津郡 龍雲里窯·沙堂里窯·桂栗里窯·三興里窯, 海南郡 新德里窯 등에서 초기청자를 제작하였는데,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은 康津郡 龍雲里窯이다. 龍雲里에서는 39개소의 初期靑磁窯가 확인되었다.³⁵ 그 가운데에

³⁴ 해무리굽碗에 있어서 內底曲面式碗에서 內底圓刻式碗으로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각별히 鄭良謨, 앞의 글, pp. 180-184; 崔健, 앞의 글(1994), pp. 45-5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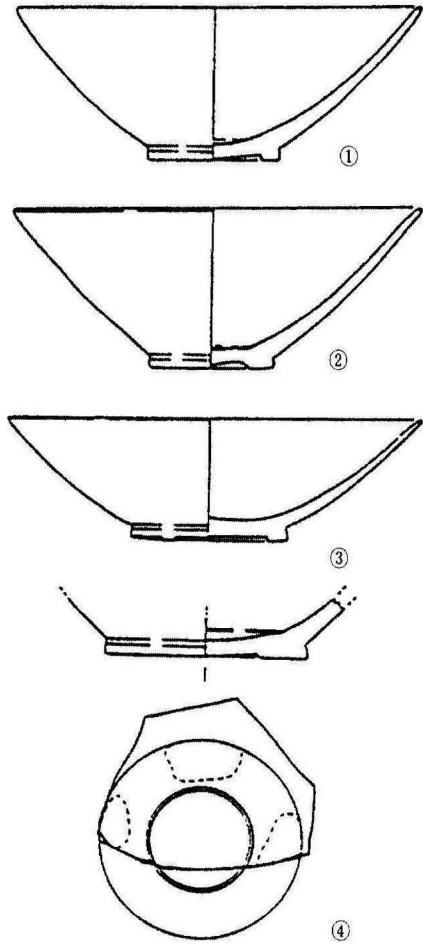
도 12 康津郡 龍雲里 9號窯址 출토 靑磁해무리굽碗, 右上은 內底曲面式이고 나머지는 內底圓刻式, 國立中央博物館

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출토되는 곳은 63號窯와 9號窯 정도에 불과하다³⁶. 그 대부분의窯에서는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만이 출토될 뿐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은 龍雲里窯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만들어지고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소멸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해무리굽碗의 굽폭의 변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요한 이해의 단서를 제공한다. 우리는 앞서의 검토에서 해무리굽碗의 경우 內底圓刻의 有無에 따라 굽폭의 상황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일반적으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의 경우가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경우보다 굽폭/저경의 값이 작다는 점이 그것이다. 해무리굽碗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면서 內底曲面式碗에서 內底圓刻式碗으로 전개되어 간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사실은 內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굽폭/저경의 값이 점차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크기의 저경을 가진 해무리굽碗을 상정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굽폭이 점차 넓어져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³⁷

³⁵ 崔健, 「靑磁窯址의 系譜와 展開」, 『미술사연구』 12(미술사연구회, 1998), p. 10 참조.

³⁶ 崔健 外, 앞의 책(1992), pp. 59-64 및 pp. 158-160.



도 13 始興市 芳山大窯 출토 각종 碗

하지만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는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이 이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은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를 대표하는窯 가운데 하나인 始興市 '芳山大窯' 에서의 碗의 출토상황을 눈여겨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芳山大窯에서 출토된 碗들은 굽폭과 內底面의 처리방식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³⁷. 첫째, 굽폭/저경의 값이 0.10 이하로 작은 편이고 內底面이 曲面으로 처리되어 있는 유형, 둘째, 굽폭/저경의 값이 0.10-0.20 미만이고 內底面에 희미한 圓刻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유형, 셋째, 굽폭/저경의 값은 두 번째 유형의 경우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고 內底面이 曲面인 유형, 넷째, 굽폭/저경의 값이 0.20을 전후하거나 상회할 정도로 크고 內底面에 뚜렷한 圓刻이 있는 유형이 그것들이다. 이 가운데 넷째 유형은 白磁에서만 보이며, 굽폭/저경의 값이 0.25 정도에 이르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窯址 전역에서 10片 정도가 발견되었을 뿐인 예외적인 존재이다.³⁸ 결국, 넷째 유형을 잠시 논외로 돌려놓을 경우, 芳山大窯의 碗들은 첫째-셋째 유형으로 분류되는 셈인데,

37 물론 이러한 변화가 해무리굽碗이 제작된 전 기간에 걸쳐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른바 後期 해무리굽碗 -또는 變形해무리굽碗-의 단계에 이르면, 굽폭이 오히려 좁아진다(崔健, 앞의 글(1994), p. 46 참조).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변화는 後期 해무리굽碗 단계에 접어들기 이전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38 芳山大窯에서 출토된 碗의 형식 분류는 이미 발굴 보고자에 의해 이루어졌다(崔健 外, 『芳山大窯』 始興市 芳山洞 初期靑磁·白磁 窯址 發掘調査 報告書(海剛陶磁美術館·京畿道始興市, 2001), pp. 64-66; 李鍾玟,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하여 본 中部地域 埴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韓國美術史學會, 2001), p. 71 참조). 본고에서는 그러한 기왕의 성과를 토대로 주로 굽폭과 內底面의 처리방식의 관점에서 분류하였다. 圖 13은 李鍾玟, 앞의 글, p. 72의 圖面 1에서 재인용하였다.

이 가운데 굽폭이 좁은 첫째 유형은 輪形底碗으로 간주됨으로, 芳山大窯에서 출토되는 해무리굽靑磁碗은 둘째와 셋째 유형에 속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고 믿는다.³⁹

芳山大窯에서 두 유형의 해무리굽碗은 표준 퇴적층의 거의 모든 층위에서부터 발견되지만, 층위에 따른 빈도수는 한결같지 않다.⁴¹ 둘째 유형의 해무리굽碗은 초기의 층위에서는 그 빈도수가 낮으나, 그 위의 층위에서 빈도수가 늘어나 여러 유형의 靑磁碗 가운데 전체적인 수량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에 셋째 유형의 해무리굽碗은 초기의 층위에서는 빈도수가 비교적 높지만, 그 위의 층위로 올라갈수록 빈도수가 낮아진다. 이와 같은 해무리굽碗들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芳山大窯에서는 두 유형의 해무리굽碗들이 초기 단계부터 말기 단계까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자는 초기 단계에는 소량 제작되었으나 그 이후에 대량으로 제작되었으며, 후자는 초기 단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제작되었으나, 점차 생산량이 감소되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芳山大窯에서의 해무리굽碗의 전개양상을 남서부지방의 그것과 비교할 때 看取되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차이점은, 남서부지방의窯에서 명확하게 눈에 띄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에서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으로의 변화가 그곳에서는 그다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일 것이다. 극히 예외적인 넷째 유형의碗을 돌려놓을 경우 芳山大窯에서는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거의 빠짐없이 확인되는 전형적인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설사 둘째 유형을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의 범주에 넣는다고 해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둘째와 셋째 유형은 각각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과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으로 간주되는 셈인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자 모두 시기에 따

³⁹ 李鍾玟, 앞의 글, pp. 71-73 참조.

⁴⁰ 방산대묘의 발굴보고자는 둘째와 셋째 유형의碗 가운데 굽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것은 해무리굽碗으로, 좁은 것은 先해무리굽碗으로 분류하였다(崔健 外, 앞의 책(2001), pp. 65-66 및 p. 164; 李鍾玟, 앞의 글, p. 71 참조). 하지만 발굴보고자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先해무리굽'은 '해무리굽'에 비해 상대적으로 굽폭이 좁은 그러한 굽을 아우르는 용어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李鍾玟, 앞의 글, p. 71의 註6 참조). 필자와 이 용어의 최초 사용자인 朴淳發도 2000년 12월 2일에 열린 용인시사학술대회에서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 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고 제IV장을 참조). 그러므로 둘째와 셋째 유형의碗들을 굳이 해무리굽碗과 先해무리굽碗으로 나누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굽폭이 일반적인 해무리굽보다는 훨씬 좁고 輪形底보다는 약간 넓은 이른바 後期 해무리굽도 해무리굽의 범주에 넣는다는 점에서, 이제까지 先해무리굽으로 지칭되어 온 것들 가운데 분명히 輪形底에 속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를 가리키는 마땅한 용어가 정립될 때까지는 해무리굽의 한 부류로 파악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⁴¹ 芳山大窯에서의 해무리굽碗의 출토상황에 대해서는 崔健 外, 앞의 책(2001), pp. 81-90 및 p. 98; 李鍾玟, 앞의 글, pp. 71-73 참조.

라 생산량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芳山大窯가 廢窯될 때까지 일관되게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 밖의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들의 경우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이다.⁴²

하지만 굽폭의 변화양상에 있어서는 芳山大窯와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들은 일정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앞서 芳山大窯에서 둘째 유형의 碗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생산량이 증가하여 네 유형의 碗들 가운데 전체적인 수량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⁴³ 그런데 둘째 유형의 碗들은, 극소수인 넷째 유형의 碗을 제외하고서는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굽폭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碗들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갔다는 것은 굽폭이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체적으로 넓어져 갔음의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중서부지방의 그 밖의 初期靑磁窯들의 경우도 여기서 예외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해무리굽碗의 전개양상은 월주요 玉璧底碗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玉璧底碗의 경우는 內底圓刻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굽폭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玉環底碗으로 변화되면서, 해무리굽碗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점차 좁아져 갔기 때문이다. 이 점은 해무리굽碗의 전개상의 본질적인 한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것은 비록 해무리굽碗이 越州窯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제작되기 시작했지만, 적어도 內底面의 처리방식이 나 굽폭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이후의 전개는 월주요로부터의 별다른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⁴⁴ 다시 말하면, 해무리굽碗의 전개에 있어서 內底面의 처리방식이 內

⁴²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白磁窯에서 출토된 碗들의 상호 비교는 李鍾玟, 앞의 글, pp. 79-80 참조.

⁴³ 李鍾玟, 앞의 글, pp. 71 참조.

⁴⁴ 한국의 초기청자-백자를 포함하여-가 월주요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제작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한동안은 월주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갑자기 알 수가 없다. 다만 당시의 對中關係나 한국 초기청자 생산체제의 변화-예컨대 磁器所 체제의 성립 등-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따름이다. 한편, 이 점과 관련하여 金載悅은 “해무리굽碗(玉璧底碗, 筆者)이 중국에서 飲茶用的 특수한 용도의 그릇일 가능성이 높는데, 처음에는 중국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형(이른바 先해무리굽碗, 筆者)이 들어와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생산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어떤 목적에 의해 특수 용도의 해무리굽완류가 생산되다가 차츰 이것이 주류가 되면서 초기청자의 대표적인 기형이 되어, 중국에서 사라진 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생산되면서 변형해무리굽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추측하였다(金載悅, 앞의 글(1998), p. 228). 하지만 과연 중국에서 이른바 ‘先해무리굽碗’과 같은 유형-玉環底碗-이 동일한 시기에 玉璧底碗에 비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기형이었는데는 하는 점은 의문이다. 적어도 龍仁 西里窯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일반적인 斗笠形碗의 경우 월주요에서는 玉璧底碗과 玉環底碗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적 선후관계를 이루면서 유행한 기형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설사 그러한 가

底曲面式에서 內底圓刻式으로 변화되어간 것이나, 굽폭이 점차 넓어져간 것은 越州窯의 영향과 거의 관계없이 內在的인 요인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의 해무리굽碗이 서로 한결같지 않은 전개과정을 걸은 것도 이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이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의 해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밝혀주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적어도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무리굽碗이 월주요의 영향으로 제작되기 시작한 이후의 전개과정에 보이는 여러 특징들을 玉璧底의 그것과 비교하는 일-예컨대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에 보이는 넓은 굽폭과 玉璧底碗의 그것과의 相關性을 찾는 일-따위가 거의 무의미하다는 점이 그것이다.⁴⁵ 당연히 해무리굽碗이 제작되기 시작한 이후의 전개과정상의 어느 특정 유형의 해무리굽碗과 玉璧底碗과의 일정한 유사성이 看取된다고 하여 그것을 토대로 소급하여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를 추적하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해무리굽碗을 토대로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처음 제작하기 시작한 당시의 그것-그것이 해무리굽碗이든 다른 유형의 碗이든-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월주요에서 어느 시기에 제작된 碗과 系譜的 相關性을 갖는지를 비교해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해무리굽碗의 전개과정은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바로 이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할 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이른바 '先해무리굽碗'에 관한 그것이다. 이제 장을 바꾸어 이 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능성을 상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이후 한동안 적어도 斗笠形碗의 경우 월주요와는 상반된 전개과정을 밟았다는, 다시 말하면 월주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⁴⁵ 이제까지의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가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IV. 이른바 ‘先해무리굽碗’ 問題

이른바 ‘先해무리굽碗’은 말 그대로 ‘해무리굽碗’에 앞선 형식의 碗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1980년대에 龍仁市 西里窯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성립되었다.⁴⁶ 특이하게 博築窯로 窯業을 시작하여 중간에 土築窯로 전환한 것으로 유명한 이窯에서는 5-6m에 달하는 거대한 窯廢棄物 堆積에서 4개의 自然層位가 확인되었는데, 문제의 ‘先해무리굽碗’은 맨 아래층인 I期層과 그 위층인 II期層에서 출토되었다.⁴⁷ ‘해무리굽碗’은 II期層에서부터 ‘先해무리굽碗’과 함께 출토되기 시작하여, III期層에서는 단일 器種으로서 가장 많이 출토된다. 최상층인 IV期層에서 출토되는 碗들은 그 대부분이 輪形底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⁴⁸ 이른바 ‘先해무리굽碗’은 청자와 백자로 제작되었는데, 하나같이 內底面이 曲面으로 되어 있으며, 청자 ‘先해무리굽碗’의 경우 올리브 그린(olive green)색이나 暗褐色調의 유약이 얇게 입혀져 있다. 그리고 底徑은 5-6cm 정도이고, 굽폭이 일반적인 ‘해무리굽碗’의 그것보다 좁은 것-0.5-0.8cm 정도-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한다.⁴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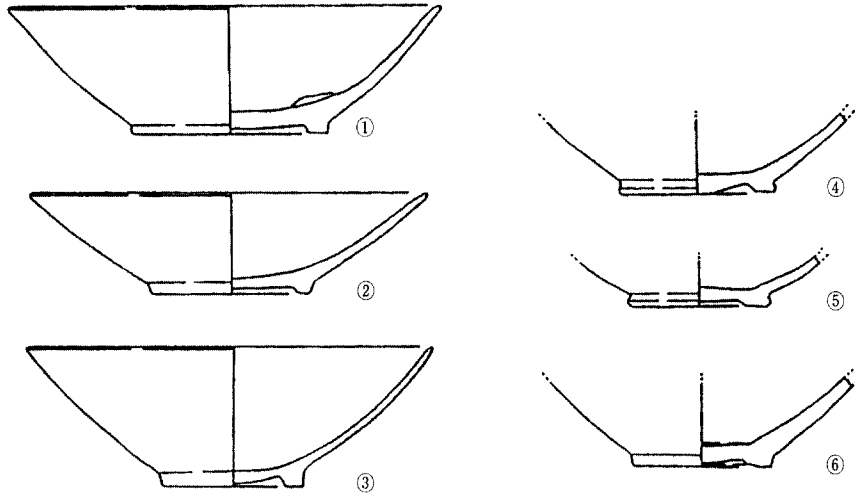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이른바 ‘先해무리굽碗’을 ‘해무리굽碗’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청자로 인식해 왔다.⁵⁰ 그리고 더 나아가 ‘해무리굽碗’을 중국의 玉璧底碗과 견주어 그 제작시기를 추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급하여 ‘先해무리굽碗’의 제작시기를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명하려 하였다.⁵¹ 西里窯의 자연층위와 ‘先해무리굽碗’ 및 ‘해무리굽碗’의 출토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그러한

⁴⁶ 西里窯의 發掘報告者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西里窯에서 출토된 碗들을 ‘해무리굽碗’과 ‘先해무리굽碗’으로 분류하였으나,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필자는 이러한 분류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후은 그들의 견해와 그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이기 때문에 편의상 일단 그들의 분류에 따라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한다. 여기에서 굳이 ‘해무리굽碗’과 ‘先해무리굽碗’이라는 말을 따옴표로 묶어서 사용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⁴⁷ 이른바 ‘先해무리굽碗’의 출토 상황에 대해서는 金載悅, 앞의 글(1988), pp. 5-7; 同著, 앞의 글(1990), pp. 49-52; 同著, 앞의 글(1998), pp. 215-220 참조. 한편, 西里窯의 I·II期層에서는 문제의 ‘先해무리굽碗’뿐만 아니라 동일한 유형의 굽을 가진 鉢도 출토되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각별히 碗에 주목하였기 때문에 鉢의 경우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⁴⁸ 圖 14는 李鍾玟, 앞의 글, p. 80의 圖面 4에서 재인용.

⁴⁹ 金載悅, 앞의 글(1988), p. 6; 同著, 앞의 글(1990), pp. 49-50; 同著, 앞의 글(1998), pp. 216-217 및 pp. 227-228 참조.



도 14 龍仁市 西里窯 출토 각종碗

접근방식이 一見 타당해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일이 아니다. 이 점은 '先해무리굽碗' 과 '해무리굽碗' 의 특징과 전개양상 등을 검토해보면 분명해진다.

西里窯 퇴적의 4개 층위 가운데 I期層과 II期層에서 출토된 '先해무리굽碗' 과 '해무리굽碗' 의 대부분은 하나같이 측면선이 직선이거나 직선에 가까운 斗笠形碗으로, 內底面이 曲面으로 처리되어 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굽폭의 넓고 좁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층위에서 출토된 '先해무리굽碗' 가운데 輪形底碗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굽폭이 상대적으로 가장 좁은 일부분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은 월주요의 玉環底碗의 범주에 드는 것이다. '해무리굽碗' 도 전형적인 玉璧底碗과는 거리가 먼, 玉環底碗에 속하는 것들이다. 굽폭/저경의 값이 0.20을 전후하거나 상회하여 玉璧底碗의 범주에 드는 '해무리굽碗' 은 오히려 I期層과 II期層보다 시기적으로 뒤진 III期層에서 가장 많이 출토된다. 하지만 이 층에서 출토되는 '해무리굽碗' 은 하나같이 玉璧底碗과는 달리 內底圓刻이 있다.⁵²

이러한 특징을 갖는 '先해무리굽碗' 과 '해무리굽碗' 의 전개과정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

⁵⁰ 이제까지 이 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학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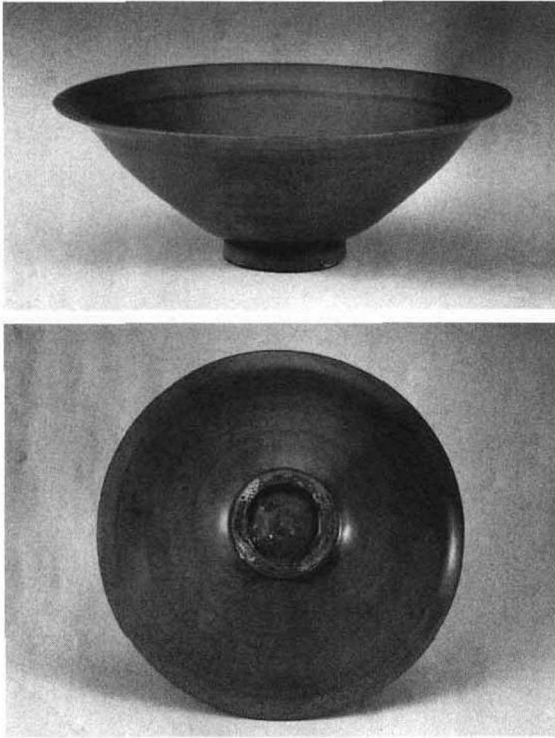
⁵¹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학자는 龍仁市 西里窯를 직접 발굴한 金載悅이다(金載悅, 앞의 글(1988), pp. 11-12; 同著, 앞의 글(1990), p. 53; 同著, 앞의 글(1998), pp. 230-231 참조).

는 한 가지 사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은 전체적으로 굽폭이 점차 넓어져 간다는 점이다. 이는 Ⅲ期層 이후에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內底面에 圓刻이 있는 '해무리굽碗' 단계에 접어들면 더욱 심화된다. 이와 같은 西里窯에 있어서의 '先해무리굽碗'과 '해무리굽碗'의 굽폭의 전개양상은 우리나라 初期靑磁·白磁窯에서 출토되는 斗笠形碗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변화상으로서, 동일한 기형—斗笠形—을 가진 월주요 玉璧底碗의 그것과는 판이하다. 玉璧底碗의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玉環底碗으로 변화되면서 굽폭이 그와는 정반대로 점차 좁아져 갔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斗笠形碗이 越州窯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제작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의 전개는 그곳으로부터의 별다른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굽폭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玉璧底碗을 연상시키는 西里窯 Ⅲ期層의 '해무리굽碗'에 玉璧底碗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內底圓刻이 있다는 점이 이를 더욱 실감나게 확인시켜준다.

이상의 논의에 큰 무리가 없다면, '해무리굽'을 중국의 玉璧底와 견주어 그러한 굽을 갖는碗의 제작시기를 추측하고, 그것을 토대로 소급하여 '先해무리굽碗'의 제작시기를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명하려는 일련의 노력은 애초부터 성공을 거두기 힘든 일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西里窯의 '해무리굽碗'의 제작시기를, 그와 별다른 영향관계가 없는 중국의 玉璧底碗과 비교하여 추정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무의미한 일로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했으므로 여기에서 더 이상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줄 안다. 요컨대 西里窯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국의 영향으로 窯業을 시작하였다는 견지에서 우리가 청자—백자를 포함하여—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와 관련하여 월주요의 斗笠形碗과 집중적으로 비교·검토해보아야 할 직접적인 대상은 기존에 주목해 온 '해무리굽碗'이 아니라 그窯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문제의 '先해무리굽碗'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西里窯의 I·Ⅱ期層에서 출토된碗들에 보이는, 굽폭이 일반적인 해무리굽보다 상대적으로 좁은 굽을 '先해무리굽'의 개념으로 아우른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실 '先해무리굽'은 '해무리굽'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이 가능하며, 이 점에서 그것은 '해무리굽'의 종속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先해무리굽'은 시간적

52 이상의 '先해무리굽碗'과 '해무리굽碗'의 기형적 특징과 출토현황은 金載悅, 앞의 글(1988), pp. 6-7; 同著, 앞의 글(1990), pp. 49-51; 同著, 앞의 글(1998), pp. 215-219 참조.



도 15 靑磁해무리굽碗, 海剛陶磁美術館

으로 '해무리굽'에 先行하는 굽이라는 의미 이외에는 어떠한 다른 의미도 함유하고 있지 않다. 즉 그것은 문제의 굽의 특징적인 속성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先해무리굽'이라는 개념의 설정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를 밝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은 바 크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한 노력은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개념의 설정은 西里窯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碗들—이제까지 '先해무리굽碗'으로 통칭되어 온 것—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것

이 월주요에서 어느 시기에 제작된 碗과 系譜的 相關性을 갖는지를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西里窯에서 출토된 碗들의 굽을 '先해무리굽'과 '해무리굽'으로 분류하고 그것을 토대로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에 접근하는 한, 누구나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先해무리굽'보다는 그 전제가 되는 '해무리굽'에 주목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필자는 전형적인 해무리굽보다 약간 굽폭이 좁은 그것들을 '先해무리굽'이라는 개념으로 아우르는 것에 크게 회의적이다. 그것은 자칫 한국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향한 시야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들 가운데 輪形底에 속하는 굽폭이 좁은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록 일반적인 해무리굽보다는 굽폭이 좁지만 輪形底보다는 넓으므로 해무리굽의 한 부류로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리가 없으리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가 '後期 해무리굽' 또는 '變形 해무리굽'이라고 하여 해무리굽의 한 부류로 이해하는 末期의 해무리굽도 輪形底에

비해 굽폭이 약간 넓은 뿐이라는 점이 이를 더욱 뒷받침해준다¹⁵.

V. 해무리굽碗 등을 통하여 본 韓國 靑磁 製作의 開始時期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해무리굽碗을 토대로 한국에 있어서의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처음 제작하기 시작한 당시의 그것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그것이 越州窯에서 어느 시기에 제작된 것과 系譜的 相關性을 갖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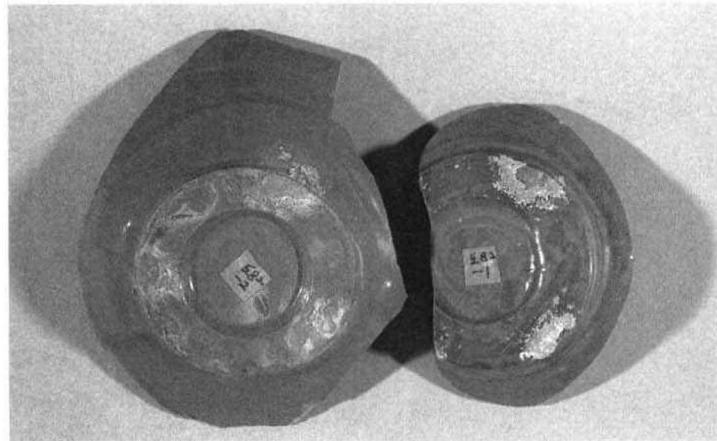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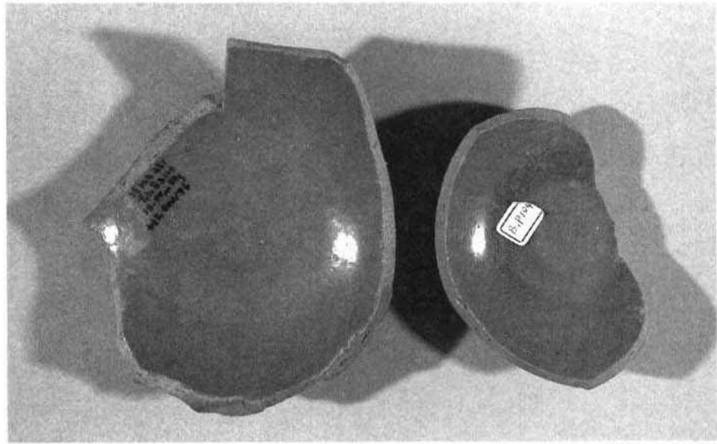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해무리굽碗들은 하나같이 斗笠形碗으로 內底圓刻이 없고 굽폭이 輪形底보다 어느 정도 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형·제작기법·燜法·굽폭 등 전반적인 면에서 越州窯의 玉環底碗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⁵³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가운데서 굽폭/저경의 값이 0.20에 이르거나 이를 상회하여 적어도 굽폭의 측면에서 보면 玉璧底碗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龍雲里窯를 비롯한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¹⁶.⁵⁴

만약 그러한 굽폭이 넓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계보적으로 직접 월주요의 玉璧底碗에 닿아 있는 것이라면,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들은 문제의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과 동일한 유형인 월주요의 斗笠形碗의 굽이 玉璧底에서 玉環底으로 전환되어 가는 9세기 후반경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⁵⁵ 하지만 이 점은 그렇게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⁵³ 본고 제II·III장 참조.

⁵⁴ 註30과 같음.

⁵⁵ 월주요의 일반적인 斗笠形碗의 경우 9세기 후반경에 玉璧底가 소멸되고, 900년경에 조성된 臨安 板橋 吳隨口墓(M21墓)에서 玉環底를 가진 斗笠形碗이 출토되었으므로(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 『浙江臨安板橋的五代墓』, 『文物』 1975년 제8기(文物出版社, 1975), p. 67 참조), 玉璧底로부터 玉環底로의 전환은 9세기 후반경에 이루어졌



도 16
 南西部地方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굽폭이 넓은
 內底曲面式 靑磁해무리굽碗,
 保寧市 聖住寺址 출토,
 忠南大學校 博物館

일이 아니다. 이들과 玉璧底碗 사이에서 적지 않은 차이점이 看取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선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발견되는 굽폭이 넓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들은 일반적으로 玉璧底碗에 비해 底徑이 작은 편이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저경이 6cm 정도이거나 그 미만이다. 그리고 側斜面의 경사도 상대적으로 급한 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발견되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들의 경우, 여기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그러한 굽폭이 넓은 것이 굽폭이 그보다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吳隨口墓(M21墓)의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註61을 참조.

약간 좁은 것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가 우리의 주목에 값한다.⁵⁶ 이 견해는 龍雲里窯 등 남서부지방의 初期靑磁窯에서 제작된 그 밖의 다른 器種들까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이해 위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⁵⁷

이러한 상황은 중서부지방의 西里窯나 芳山大窯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西里窯의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굽폭이 비교적 좁은 것들이 I期層에서부터 출토된 반면 玉璧底碗을 연상시키는 굽폭이 넓은 것들은 비록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II期層에서 비로소 출토되기 시작하며, 芳山大窯의 경우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굽폭이 넓어져 가는 추세였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문제의 굽폭이 넓은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 우리나라의 初期靑磁窯에서 가장 이른 시기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청자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결국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은 그보다 굽폭이 약간 좁은, 월주요의 玉環底碗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이다.

해무리굽碗 가운데 初期靑磁窯에서 처음 제작하기 시작한 그것이 월주요의 玉環底碗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면, 그窯들의 성립은 월주요에서 玉璧底에서 玉環底로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 즉 玉環底碗이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시기의 일로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월주요에서 玉環底碗은 五代 前期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우리나라 해무리굽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斗笠形碗이었다.⁵⁸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그러한 玉環底碗의 시대로 접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그것이 玉璧底碗의 소멸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추측을 가능하게 해준다.⁵⁹

월주요에서 제작된 玉環底碗으로서 이제까지 확인된 가장 늦은 紀年 자료는 大中 5년

⁵⁶ 崔健, 앞의 글(1994), p. 46.

⁵⁷ 崔健은 1991년 8월 1일부터 1992년 2월 20일까지 강진 지역에 산재한 188개소의 靑磁窯址에 대한 정밀한 지표 조사를 한 후에 이러한 견해를 제출하였다(崔健 外, 앞의 책(1992), pp. 23-24 및 p. 44 참조).

⁵⁸ 謝純龍, 앞의 글, p. 92; 林士民·俞敏敏, 앞의 글, pp. 320-321; 林士民, 앞의 글(未發表)의 제3장 關於韓國“玉璧底”年代問題와 제4장 越窯與高麗靑瓷的交融 참조.

⁵⁹ 그렇다고 해서 월주요에서 제작된 모든 유형의 碗에 있어서 玉璧底碗의 소멸과 玉環底碗 시대의 개막이 반드시 시간적 선후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玉環底碗이 유행하던 시기에도 여러 유형의 玉環底碗들이 제작되었음이 窯址 조사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제작된 玉環底碗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斗笠形碗과는 거리가 먼, 구연부가 外反된 碗들이었다(寧波市考古文物研究所(林士民 執筆), 『浙江寧波和義路遺址發掘報告』, 『東方博物』 제1집(杭州大學出版社, 1997), pp. 264-272; 鄭建華, 앞의 글, pp. 90-93; 林士民·俞敏

(851)에 紹興市에 조성된 묘에서 출토된 청자이다.⁶⁰ 그리고 五代 早期(900년경)에 조성된 臨安 板橋 吳隨□墓(M21墓)에서는 靑磁玉環底碗이 출토되었다.⁶¹ 물론 이것도 월주요에서 제작된 것이다. 그런데 비록 월주요에서 제작된 청자는 아니지만, 邢窯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⁶² 白磁玉璧底碗이 874년에 조성된 扶風縣 法門寺塔의 地下宮에서 출토되었다.⁶³ 현재까지의 玉璧底碗의 紀年 자료는 이것이 마지막이다.⁶⁴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월주요에서 玉璧底碗이 소멸되고 玉環底碗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9세기 말경의 일로 이해해서 좋지 않을까 여겨진다. 결국 이때가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의 上限이 되는 셈이다.

한편, 玉環底碗은 吳越의 2代王 錢元瓘의 妃인 馬氏의 陵으로 939년에 조성된 康陵에서 출토된 靑磁玉環底碗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의 신빙성 있는—적어도 玉環底碗의 실제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측면에서—紀年 자료는 출토되지 않는다^{도8}.⁶⁵ 아울러 五代 末期부터는 월

敏, 앞의 글, pp. 319-320; 謝純龍, 앞의 글, p. 89; 同著, 『隋唐早期上林湖越窯』, 『東南文化』 1999년 제4기(南京博物院, 1999), pp. 97-99; 同著, 『慈溪里杜湖越窯窯址』, 『東南文化』 2000년 제5기(南京博物院, 2000), pp. 27-28). 玉環底를 가진 斗笠形碗은 비교적 드문 편인데, 그것들마저도 그 대부분이 中唐時期 이전의 窯址에서 발견되며, 하나같이 口徑이 20cm를 상회하는 大形品이다(謝純龍, 앞의 글(南京博物院, 1999), pp. 98-101; 同著, 앞의 글(2000), pp. 27-28 및 p. 33; 林士民·俞敏敏, 앞의 글, pp. 319-320 참조). 그러므로 구경이 14-15cm를 전후한 일반적인 斗笠形碗의 경우는 시간적 전후관계를 이루면서 玉璧底碗에서 玉環底碗으로 전개되어 나갔다고 보아도 좋다고 믿는다. 이 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註25의 여러 논문들을 참조.

⁶⁰ 林士民, 『談越窯靑瓷的秘色瓷』, 『文博』 1995년 제6기; 鄭建華, 앞의 글, p. 93에서 재인용.

⁶¹ 吳隨□墓의 조성시기와 거기에서 출토된 玉環底碗에 대해서는 浙江省文物管理委員會, 앞의 글, p. 67; 弓場紀知, 『唐·宋代之越州窯磁に關する最近の成果について』, 『出光美術館館報』 42(出光美術館, 1983), p. 11; 森達也, 『唐代晚期越州窯靑磁碗の二つの系譜: 玉璧高臺碗と輪高臺碗』, 『金大考古』 34(金澤大學考古學研究室, 2000), p. 3; 李喜寬, 앞의 글, p. 257 참조.

⁶² 龜井明德, 앞의 글, p. 123 참조.

⁶³ 陝西省法門寺考古隊, 『扶風法門寺塔唐代地宮發掘簡報』, 『文物』 1988년 제10기(文物出版社, 1988), p. 24.

⁶⁴ 龜井明德, 앞의 글, pp. 117-126의 Tab. 2 『唐-北宋 紀年銘資料』 참조.

⁶⁵ 월주요에서 생산된 玉環底를 가진 斗笠形碗은 康陵 이외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五代 早期-900년경-에 조성된 臨安 板橋 吳隨□墓(M21墓)에서도 출토되었다. 그리고 942년에 조성된 遼 耶律羽之의 墓에서도 월주요에서 제작된 것이 분명한 斗笠形碗 1점이 출토되었는데(內蒙古文物考古研究所 外(齊曉光 外 執筆), 『遼耶律羽之墓發掘簡報』, 『文物』 1996년 제1기(文物出版社, 1996), p. 2 참조). 발굴보고자는 이 斗笠形碗의 굽을 矮圈足이라고 하였지만, 중국의 학자들이 玉環底를 종종 矮圈足으로 칭한다는 점이나, 문체의 斗笠形碗의 형태가 玉環底碗과 전혀 동일하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이碗도 역시 玉環底碗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필자가 實見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한편, 이제까지 확인된 玉環底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부분의 斗笠形碗의 紀年 자료들이 10세기 전반경의 것들인 데 반해서 이들에 시기적으로 훨씬 뒤진 紀年墓에서, 굽쪽의 측면에서 보면 경우에 따라서 玉環底碗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예가 출

주요에서 斗笠形碗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輪形底 형식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玉環底碗은 늦어도 10세기 중반경에는 소멸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⁶⁶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토되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遼의 韓佚의 무덤에서 출토된 斗笠形青磁碗이 그것이다(北京市文物工作隊(黃秀純·傅公鉞 執筆), 『遼韓佚墓發掘報告』, 『考古學報』 1984년 제4기, pp. 366-367 참조). 이碗은 월주요에서 제작된 것인데, 발굴보고자는 이碗의 굽을 막연히 小圈足이라고 하였다. 이 유물을 實見하지 못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圖面에 나타난 굽폭을 토대로 판단하면 玉環底碗으로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다. 그런데 韓佚의 墓誌에는 그가 995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만약 이碗을 玉環底碗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은 현재까지 紀年 자료로 확인된, 월주요에서 제작된 玉環底를 가진 斗笠形碗의 마지막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점을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碗의 전체적인 형태를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碗의 경우 자세한 사진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圖面을 토대로 형태적 특징을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 도면을 一見하여 몇 가지 특징을 看取할 수가 있다. 즉 일반적인 玉環底碗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底徑이 매우 작다. 반면 굽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側斜面의 경사도 매우 급한 편이다. 뿐만 아니라 굽폭도 輪形底와 구분될 정도로 좁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으로 미루어 볼 때, 이碗을 일반적인 玉環底碗의 범주에 넣기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설사 이碗을 玉環底碗의 범주에 넣는다고 하여도 문제는 남는다. 이 묘에서는 이 斗笠形碗 이외에도 악기를 연주하는 宴樂人物들이 새겨진 有蓋注子와 內底面 중앙에 雙鸚鵡文이 새겨진 大碗과 蝶·托蓋 등의 월주요 청자들이 출토되었다. 그런데 이 墓에서 출토된 有蓋注子와 大碗과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흡사한 청자들이 江蘇省 鎮江市 何家門에서 출토되었다(鎮江市博物館(劉和惠·翁福驊 執筆), 『鎮江·句容出土的幾件五代·北宋瓷器』, 『文物』 1977년 제10기(文物出版社, 1977), pp. 90-92). 有蓋注子의 경우는 비록 문양은 다르지만, 형태가 거의 흡사하고, 크기 또한 비슷하다. 大碗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여 크기·형태·문양 등에서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현재 중국 학자들 사이에 兩墓에서 출토된 청자들이 五代에 제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전혀 이견이 없다(北京市文物工作隊(黃秀純·傅公鉞 執筆), 앞의 글, pp. 373-374; 鎮江市博物館(劉和惠·翁福驊 執筆), 앞의 글, p. 92; 『中國陶瓷全集』 6 唐五代(上海人民美術出版社, 2000), p. 148의 도판 147과 p. 251의 도판해설(徐鐵城 執筆) 및 p. 152의 도판 153과 p. 253의 도판해설(徐瑞萍 執筆) 참조). 출토된 청자들의 형태나 문양적 특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鎮江의 墓의 발굴보고자인 劉和惠·翁福驊의 견해대로 五代 後期—필자의 생각으로는 10세기 중엽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韓佚의 墓에서 출토된 玉環底를 가진 斗笠形碗은 제작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副葬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셈인데, 生産地로부터 멀리 떨어진 消費地에서의 경우—특히 外國의 경우—이러한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龜井明德, 앞의 글, p. 109 참조).

⁶⁶ 森達也, 앞의 글, p. 2; 謝純龍, 앞의 글(1999), pp. 93-95; 鄭建華, 앞의 글, pp. 92-93; 浙江省文物考古研究所·北京大學考古文博學院·慈溪市文物管理委員會, 『寺龍口越窯址』(文物出版社, 2002), p. 350 참조. 한편, 五代 末期 이후에 玉環底가 소멸해가고 輪形底가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墊圈—그릇을 구울 때 굽의 안쪽에 받치는 고리형의 窯道具—의 사용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월주요에서는 墊圈이 사용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굽의 接地面에 耐火土를 받치고 燒造하는 泥点支墊法和 泥條支墊法이 이용되었다(鄭建華, 앞의 글, pp. 89-92 및 p. 94 참조). 이 받침법은 월주요에서 後漢代에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인데, 굽의 接地面이나 外面에 내화토의 흔적이 남게 마련이어서 그릇을 사용하는 데에도 불편하고, 아울러 외관상으로도 좋지 못한 것이 결점이었다. 이러한 결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고안된 것이 墊圈이었다. 墊圈은 굽의 안쪽 바닥에 받치므로 내화토 흔적이 굽의 接地面에 남지도 않거나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아, 實用的인 면뿐만 아니라 美觀的인 면에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鄭建華, 앞의 글, p. 92 참조). 다만, 받치는 기물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墊圈의 外徑을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한

청자 제작의 개시시기의 下限은 10세기 전반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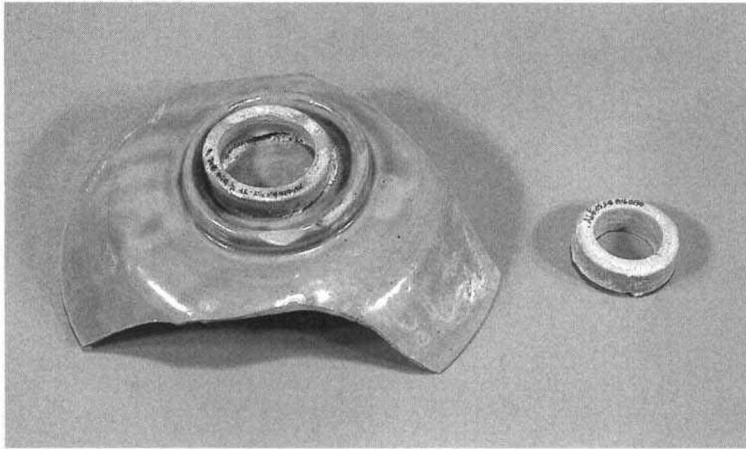
우리나라 初期靑磁窯의 해무리굽碗과 월주요의 玉璧底碗 및 玉環底碗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가 9세기 말경-10세기 전반의 어느 때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양자의 비교만으로 더 이상의 추적은 힘들다. 여기에서 남서부지방의窯와 중서부지방의窯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청자를 생산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가장 먼저 생산하기 시작한 것은 양자 가운데 하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최근 芳山大窯에서 출토된 銘文資料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窯를 비롯한 중서부지방 初期靑磁·白磁窯의 생산집단과 개시시기 문제를 추적한 바가 있다. 그 결과 그窯들은 越州窯 陶工들의 대규모적인 이주를 토대로 성립되었으며, 그 시기는 대체로 高麗의 건국 직후인 919-925년경이었을 가능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실로 대단한 假說을 제시하였다.⁶⁷ 그러한 견해는 주로 해무리굽碗과 월주요의 玉環底碗과의 비교와 墊圈의 사용시기 및 당시의 대외관계 등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도출한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해무리굽碗과 동일한 유형인 월주요의 玉環底碗이 9세기 말경에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하여 10세기 중엽에 소멸된다는 점, 그리고 월주요에서 10세기 전반경에 墊圈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일단 우리나라에서 청자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가 10세기 전반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가 越州窯 陶工들의 대규모적인 이주를 토대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10세기 전반 가운데에서도 고려와 吳越國의 관계가 가장 밀접했던 919-925년경에 그窯들이 성립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가설을 내놓았던 것이다.

현재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는 큰 변함이 없지만, 다만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성립시기를 919-925년경으로 한정된 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월주요에서 墊圈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10세기 1/4분기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

墊圈을 굽의 안쪽 바닥에 받칠 수 있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굽의 內徑을 墊圈의 外徑보다 크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내화토를 받칠 때와 동일한 底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굽폭을 더욱 좁게 깎아내야 하고, 역으로 동일한 굽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底徑을 더욱 크게 해야만 한다. 그런데 저경을 지나치게 크게 할 경우는 외관상 결함이 되므로(張福康, 앞의 책, p. 48), 월주요 陶工들—墊圈을 사용하게 된 다른窯의 도공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전자를 택하였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玉環底의 소멸과 輪形底의 유행은 내화토를 받치는 방식에서 새로운 墊圈을 받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던 셈이다.

⁶⁷ 李喜寬, 앞의 글, pp. 256-263 참조.



도 17
 中西部地方에서 墊圈을
 사용한 例, 始興市
 芳山大窯 출토,
 海剛陶磁美術館

과 깊은 관련이 있다.

墊圈은 그릇을 구울 때 굽의 안쪽에 받치는 고리형의 窯道具로, 고리형받침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窯道具는 중서부지방의 初期靑磁·白磁窯에서는 예외 없이 출토되는데,⁶⁸ 특히 芳山大窯에서는 이른 시기부터—경우에 따라서는 開窯할 때부터—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도17.⁶⁹ 중국의 경우 墊圈은 이미 後漢 말기나 그보다 약간 늦은 시기부터 사용되었지만,⁷⁰ 월주요의 경우는 五代 후기에 접어들어 일반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⁷¹ 이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 臨安市 明堂山의 水邱氏墓와 臨安市 玲龍鎮 祥里村의 康陵에서 출토된 월주요 청자들이다.

901년에 조성된 水邱氏墓에서는 총 25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油燈·香爐·蓋罍·碗·罐·粉盒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월주요에서 제작된 것들이다.⁷² 이 가운데 특히

68 김영진, 「황해남도 봉천군 원산리 청자기가마터 발굴 간략보고」, 『조선평고연구』 1991년 제2호(사회과학출판사), p. 7; 全榮京, 「楊州 釜谷里 靑磁碗 研究」(弘益大 碩士學位論文, 1993), p. 17; 金載悅, 앞의 글(1998), p. 223; 崔健 外, 앞의 책(2001), pp. 146-147; 海剛陶磁美術館 學藝研究室, 『벽돌가마와 초기청자』(海剛陶磁美術館, 2000), pp. 16-23 참조.

69 崔健 外, 앞의 책(2001), pp. 146-147 참조.

70 馮先銘 主編, 『中國古陶瓷圖典』(文物出版社, 1998), p. 384 참조.

71 鄭建華, 앞의 글, pp. 92-94; 謝純龍, 앞의 글(浙江大學出版社, 1999), pp. 92-93 및 p. 98; 森達也, 앞의 글, pp.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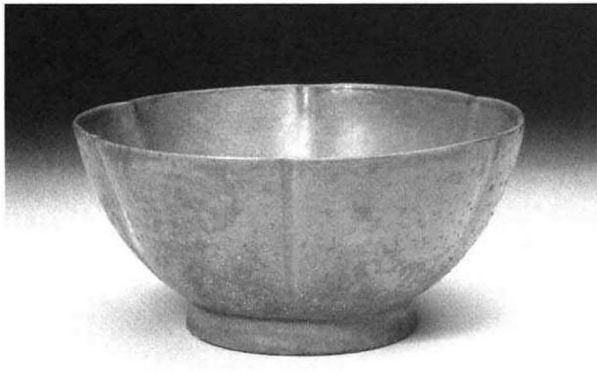
72 明堂山考古隊(陳元甫·姚桂芳 執筆), 「臨安縣唐水邱氏墓發掘報告」, 『浙江省文物考古所學刊』(文物出版社, 1981), pp. 98-99.



도 18 青磁花形碗, 五代 901년,
臨安市 水邱氏墓 출토, 臨安市文物管理委員會



도 19 도 18의 굽 부분



도 20 青磁花形碗, 五代 939년,
臨安市 康陵 출토, 臨安市文物管理委員會



도 21 도 20의 굽 부분

주목되는 것이 青磁碗이다 도 18.⁷³ 五瓣花形의 이 청자완은 청녹색을 띠고 있는 최고급의 秘色青磁로서, 약간 높은 굽다리 바닥의 釉藥을 훑어낸 후 내화도를 받치고 燔造하였다 도 19. 나머지의 청자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변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묘에서 출토된 월주요 청자들에서는 墊圈을 받치고 변조한 예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939년에 조성된 康陵에서는 총 44점의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이것들도 모두 월주요에서

⁷³ 浙江省博物館, 『浙江紀年瓷』(文物出版社, 2000), 圖版 176 참조.

제작된 최고급의 秘色靑磁들이다.⁷⁴ 이들 청자 가운데에도 五瓣花形의 청자완이 포함되어 있다도²⁰.⁷⁵ 이 碗은 기형이나 품질 및 유색 등의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水邱氏墓에서 출토된 청자완과 거의 흡사하다. 그러나 받침법은 전혀 다르다. 즉 康陵에서 출토된 이 청자완은 水邱氏墓에서 출토된 청자완과는 달리 墊圈을 받치고 번조하였다도²¹. 康陵에서 출토된 그 밖의 청자들도 후대에 일반적으로 墊圈을 받치고 번조하는 器種들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번조하였다.⁷⁶ 이는 939년경에는 적어도 고급 秘色靑磁들의 경우 墊圈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康陵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墊圈의 사용을 알려주는 紀年 자료로는 가장 앞선 시기의 것이다. 그러므로 월주요에서의 墊圈의 사용은 901년에서 939년에 이르는 시기의 어느 때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볼 때, 茅山大窯를 비롯한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開窯 시기는 919-925년경이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尙存하지만, 이 시기는 월주요에서 墊圈의 사용 자체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시기를 좀더 내려서 10세기 2/4분기에 접어든 이후의 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온당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해무리굽碗과 동일한 유형인 월주요의 玉環底碗이 10세기 중엽에는 소멸됨으로, 결국 墊圈과 해무리굽碗을 통하여 볼 때,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開窯 시기는 10세기 2/4분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⁷⁷

이렇게 보아오고 나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의당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이 중서부지방의 그것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開窯했을까, 아니면 늦게 開窯했을까 하는 점에 쏠리게 된다. 이제까지 많은 학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開窯가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그것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그 주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그 하나는 龍仁市 西里窯 퇴적의 下層인 I·II期層에서 內底曲面式 해무리굽碗을 비롯한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청자·백자들이 출토되고, 內底圓刻式 해무리굽碗을 위시한 남서부지방 유형의 백자들이 그 上層인 III·IV期層에서

74 杭州市文物考古所·臨安市文物館(張玉蘭 執筆), 「浙江臨安五代吳越國康陵發掘簡報」, 『文物』 2000년 제2기(文物出版社, 2000), pp. 14-19; 浙江省博物館, 앞의 책, 圖版 182-191.

75 浙江省博物館, 앞의 책, 圖版 189 참조.

76 杭州市文物考古所·臨安市文物館(張玉蘭 執筆), 앞의 글, pp. 16-18.

77 이렇게 볼 경우,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開窯 시기가 고려와 吳越國의 관계가 가장 밀접했던 것으로 보이는 919-925년에서 벗어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점을 그다지 크게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919-925년 이후에도 양국 사이의 외교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출토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西里窯의 출토 현황은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開窯가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그것에 시간적으로 앞서는 것을 말해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무엇보다도 西里窯의 Ⅲ期層에서부터 출토되는 남서부지방 유형의 백자들이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의 어느 단계의 것과 관련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만약 그것들이 남서부지방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직후의 것들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한 출토 현황은 유익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의 것들이라면,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후자였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즉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西里窯에서는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가 성립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 그 영향으로窯의 구조 자체를 전환하고 아울러 남서부지방 유형의 백자를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西里窯의 출토 현황을 근거로 중서부지방이 남서부지방에 앞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無理이다.

또 다른 하나의 근거는 우리나라의 초기청자의 전개를 월주요의 청자 제작기술이 유입된 이후 월주요 청자를 모방하는 단계를 거쳐 점차 '高麗的'인 조형적 특징을 갖는 청자로 移行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즉 막연히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가 월주요의 청자와 흡사한 반면, 남서부지방 초기청자는 그것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中國的인, 즉 좀더 高麗化된 것으로 간주한 다음 전자가 후자에 비해 시간적으로 선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청자의 양상을 보면, 과연 전자가 후자에 비해 월주요 청자에 흡사한지 필자는 잘 알지를 못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현상이 양자의 선후관계를 알려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양자는 서로 다른 성립과 전개의 과정을 걸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⁷⁸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시간적 선후와 관계없이 양자의 성립 및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龍仁市 西里窯의 또 다른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西里窯는 博築

⁷⁸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의 성립과 전개 과정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李喜寬, 「韓國 初期靑磁生産體制의 成立과 展開」, 『대의문물교류연구』,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2002(개재예정)의 제Ⅲ장 初期靑磁 生産體制와 그 成立과 제Ⅳ장 初期靑磁 生産體制의 展開를 참조.

窯를 축조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폐기하고 土築窯를 축조하여 사용한窯로 유명하다. 이窯에서 博築窯를 축조한 것이 월주요의 영향이고, 土築窯로 전환한 것이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영향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西里窯의 開窯시기는 芳山大窯에서 출토된 청자들과 窯道具 그리고 窯의 구조 등을 비교해 볼 때 芳山大窯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이해된다.⁷⁹ 문제는 博築窯에서 土築窯로 전환한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다.

조사된 바에 따르면, 博築窯는 길이가 약 40m, 폭이 약 1.8m로서, 32×15×7cm에 달하는 장방형의 큰 벽돌과 작은 벽돌로 축조되었다.⁸⁰ 그리고 벽돌로 축조된 窯壁이 크게 2列로 되어 있어 적어도 한 차례의 대대적인 改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改築되기 전의 窯의 폭은 2m를 넘었을 것이 분명하다. 土築窯는 博築窯에 잇대어 축조하여 폭이 훨씬 좁아들었다(1.2-1.5m). 반면에 전체 길이는 약 83m에 달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窯 가운데 가장 길다. 하지만 처음부터 줄곧 이와 같이 장대한 窯를 운용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봉통부를 여러 곳으로 옮겨가며 작은 규모의 窯를 운용하다가,⁸¹ 최종에는 이들을 모두 연결시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여기에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보아야 할 것은 博築窯의 대대적인 改築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土築窯로 전환하기 직전의 博築窯의 폭이 1.8m 정도로 상당히 넓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西里窯에 있어서 博築窯에서 土築窯로의 전환이, 博築窯를 축조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여 더 이상 제 기능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廢棄하고 새로이 土築窯를 축조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점은 芳山大窯의 경우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芳山大窯는 처음 축조할 당시의 총 길이는 39.1m이고, 폭은 222cm로서, 장방형의 벽돌을 주재료로 하여 축조하였다. 이 窯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 改築하였는데, 改築할 때마다 窯의 폭이 줄어들어 최종 단계에는 90cm까지 좁아진 상태로 확인되었다.⁸² 아마도 芳山大窯는

⁷⁹ 李鍾玟, 앞의 글, pp. 71-73; 李喜寬, 앞의 글, p. 264 참조.

⁸⁰ 金載悅, 앞의 글(1990), pp. 47-48; 同著, 앞의 글(1998), pp. 211-214 참조. 아래의 西里窯의 구조에 대한 서술도 거의 金載悅의 연구에 의거한 것이다.

⁸¹ 발굴자는 30-40m 정도 길이의 窯를 여러 곳으로 옮겨가며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였다(金載悅, 앞의 글(1990), p. 48; 同著, 앞의 글(1998), p. 213). 하지만 필자는 西里窯의 土築窯가 康津窯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에서, 康津窯의 龍雲里 10號窯(土築窯) 등의 경우로 미루어 그보다 더 규모가 작은, 대략 길이가 20m를 전후한 窯를 운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⁸² 崔健外, 앞의 책(2001), pp. 159-160; 李鍾玟, 앞의 글, p. 68 참조.

⁸³ 이 점은 海剛陶磁美術館의 李鍾玟 學藝研究員의 교시에 따른 것이다.

窯의 폭이 너무 좁아져 더 이상 改築할 수 없는 상태에서 廢窯된 것으로 판단된다.⁸⁴

이러한 芳山大窯의 改築 상황은 西里窯에서 博築窯에서 土築窯로 전환한 시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芳山大窯는 대략 10세기 2/4분기에 開窯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늦어도 11세기 초기에는 廢窯된 것으로 이해된다.⁸⁴ 그러므로 芳山大窯의 운영기간은 대략 70-80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발굴된窯의 주위에 거의 동일한 성격의 또 다른窯址가 있으므로,⁸⁵ 이窯의 운영기간까지 염두에 두면 발굴된 芳山大窯의 운영기간은 그보다 더 짧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간 동안 3번의 改築을 하였으므로 대략 10여 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미만의 기간을 週期로 改築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西里窯의 경우는 처음 博築窯를 축조한 후 한 번 개축을 하여 사용하던 도중 土築窯로 전환하였으므로, 위에서 살펴본 芳山大窯의 경우를 여기에 적용하면, 博築窯에서 土築窯로 전환한 시기는 처음 博築窯를 축조한 때로부터 길게 잡아도 30여 년을 내려가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된다. 물론 芳山大窯에서 검출된 改築의 주기를 西里窯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제기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芳山大窯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開窯하여 동일한 시기에 廢窯된 것으로 이해되는 白川郡 圓山里 2號 博築窯의 경우도 세 번의 改築을 거쳐 廢窯에 이르렀으므로 그 개축의 주기가 芳山大窯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그 점을 그다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믿는다.

西里窯가 博築窯로 운영하다가 갑자기 土築窯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적어도 西里窯의 입장에서 볼 때 博築窯를 포기하고 土築窯 체제로 나아간 것은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 아래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西里窯가 기본적으로 경제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私窯였다는 관점에서 이 점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다.⁸⁶ 그리고 이는 西里窯에서 博築窯에서 土築窯로 전환할 당시 이미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에서 이미 土築窯의 경제적 효용성이 입증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실은 곧 西里窯에서 土築窯로 전환할 당시—늦어도 西里窯가 성립되고 나서

⁸⁴ 李喜寬·崔健, 「高麗初期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韓國美術史學會, 2001), p. 39 참조.

⁸⁵ 崔健 外, 앞의 책(2001), pp. 22-23.

⁸⁶ 西里窯를 포함한 중서부지방 초기청자·백자요의 성격에 대해서는 李喜寬·崔健, 앞의 글, pp. 40-44 참조.

30여 년이 지나기 전—거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는 이미 성립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였음을 의미한다. 西里窯를 비롯한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단 西里窯는 靑磁窯로 시작하였지만 곧 白磁窯로 전환하였다—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開窯하였다고 믿어짐으로⁸⁷ 남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開窯시기가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의 그것보다 늦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시기적으로 앞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여기에 생각이 미쳐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요가 청자와 窯道具의 양상이나 燔造法 그리고 窯의 구조 등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⁸⁸ 지리적으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양자가 그러한 차이점을 보이는 원인은 초기청자의 전개와 관련하여 깊이 있게 검토해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양자가 開窯 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자가 월주요의 서로 다른 계통의 窯의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믿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양자 가운데 어느 한 쪽이 먼저 窯業을 개시하고 나서 일정한 궤도에 오른 뒤 다른 한 쪽이 그 영향을 받아 開窯했다면 그러한 현상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실제에 있어서 그러하였다면, 아마도 늦게 開窯한 쪽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중국 월주요보다는 국내에서 먼저 開窯한 편의 기술을 받아들여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했을 공산이 크다. 동일한 소재인 청자를 제작하면서 국내의 인접한 곳에 開窯한 초기청자요를 돌려놓고 굳이 월주요의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였다고 보는 것은 아무래도 어색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가 어느 한편이 다른 한편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시간적 격차가 없이 각자가 월주요의 서로 다른 계통의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開窯한 데에 따른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요컨대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도 중서부지방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10세기 2/4분기경에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⁸⁷ 李鍾玟, 앞의 글, p. 83 및 p. 95; 李喜寬, 앞의 글, p. 264 참조.

⁸⁸ 남서부지방과 중서부지방 초기청자의 차이점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李喜寬, 앞의 글(2002 게재예정)의 제 II장 初期靑磁의 두 部類: 南西部地方과 中西部地方의 初期靑磁 참조.

VI. 맺음말: 韓國 靑磁 製作의 開始時期로서의 10世紀 2/4分期

우리는 이제까지 해무리굽碗에 대한 검토를 주요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시기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양대 산맥인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들이 각각 越州窯의 서로 다른 계통의窯의 청자 제작기술을 받아들여 커다란 시간적 격차 없이 10세기 2/4분기 경에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하였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10세기 2/4분기는 우리나라 역사상의 일대 격변기였다. 강력한 전제왕권을 토대로 오랫동안 한반도를 지배해 온 통일신라는 下代 이후 衰落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경상도 일대를 지배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이른바 후삼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패권을 다툰 것은 후백제와 고려였다. 수십 년에 걸쳐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는 후삼국의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한 국운을 건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면서 혼란의 소용돌이에 싸여 있었다. 말하자면 한반도는 동요와 분열의 시기였다. 935년과 936년에 각각 신라와 후백제가 항복함으로써 기나긴 후삼국 통일전쟁은 고려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그 혼란의 여파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극심한 혼란기에 陶器의 제작에 머물러 있던 우리나라에서 기술적 차원이 다른 新素材인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흔히 그러한 기술의 발전은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나라 전근대 사회에서의 정치적 안정을 이야기할 때, 통상 강력한 왕권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지방통치체제 등을 떠올리게 된다. 국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專制國家에서 그것은 어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회적 안정과 관련해서는 그 사회를 유지시켜 온 신분제도가 얼마나 제대로 유지되고 기능하였는가 하는 점을 꼽게 마련이다. 우리나라 전근대 사회가 신분제 사회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 또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中代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다 아는 바와 같이 신라는 중대에 이르러 삼국통일을 이루었다. 그리고 專制王權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왕권은 강화되었다.⁸⁹⁾ 지방지배력도 그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적으로는 엄격한 골품제적 신분제도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신라 천년의 역사

에서 中代를 가장 정치적·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학자는 거의 없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계급—骨品貴族—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할 뿐이다. 피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지배가 강화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 자신들에 대한 수탈이 그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엄격한 골품제적 신분질서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그들에 대한 신분적 차별이 그만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요컨대 피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보면, 앞서 언급한 신라 中代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이란 곧 지배계급의 자신들에 대한 철저한 수탈과 강력한 사회적 차별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

이러한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본 정치적·사회적 안정은 신라 下代에 접어들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여 9세기 말경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다음 기록을 보기로 하자.

A: 국내의 여러 州·郡에서 貢賦를 보내지 않아 府庫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지자 왕이 使者를 보내어 독촉하니, 이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도적이 별떼와 같이 일어났다. 이에 元宗과 哀奴 등이 沙伐州를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왕이 奈麻 舍奇에게 명하여 붙잡게 하였다. 舍奇가 적의 堡壘를 멀리서 바라보고는 두려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으나, 村主 祐連은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왕이 명을 내려 舍奇를 목베고 나이 10여 세 된 祐連의 아들로 村主의 직을 잇게 하였다 (『三國史記』 11 新羅本紀 眞聖王 3년).

사료 A는 신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眞聖王 3년(889)경에 일어난 이른바 納稅拒否에 대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여러 州郡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府庫가 비고 나라의 쓰임이 궁핍해졌다고 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使者를 보내 納稅를 독촉하였지만, 그것은 곧 도적으로 표현된 사실상의 불만농민들의 蜂起로 이어졌다. 이는 신라 下代 이래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신라 사회를 밑에서 떠받쳐온 농민들의 정치·경제·사회적인 불만이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였다.⁹⁰

⁸⁹ 신라 中代의 專制王權의 성립과 특질 및 전개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李基白, 『新羅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73) 및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一潮閣, 1996); 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研究』(一潮閣, 1996)에 실려 있는 일련의 논문들 참조.

농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신라 지배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뒷받침해주던 가장 중요한 경제적 토대였다. 그런데 불만농민들이 종종 도적이 되어 치안을 어지럽히고 반란에 가담한 경우는 있었지만, 납세를 거부하고 나선 적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들이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 것을 단지 그들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한 方便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라의 지배체제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서, 신라 지배계급의 정치적·사회적 안정을 뿌리부터 흔든 사건이었다. 말하자면 납세를 거부하고 나선 농민들은 아예 신라의 지배계급을 타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⁹¹

이들 불만 농민들을 앞에서 이끈 사람들은 豪族들이었다. 사료 A에 보이는 元宗과 哀奴도 沙伐州의 호족으로 판단된다.⁹² 그러나 이들 호족들은 신라의 지배계급과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골품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있던 地方人들로서, 중앙의 지배계급으로의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호족들의 정치적·사회적 처지는 일반 농민들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호족들은 골품귀족들과 달리 농민들에 대한 支配者(ruler)이기보다는 代表者 또는 指導者(leader)였다. 이 시기의 많은 농민들은 신라 국가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를 부정하고 호족을 중심으로 새로운 共同體를 형성하였다. 이 공동체는 血緣이나 地緣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이해관계나 自衛의인 목적 등으로 호족이라는 인간-엄격히 말하면 인간집단-을 중심으로 결합되어 있었다. 이 점에서 이 공동체는 豪族共同體로 부를 수가 있다.⁹³ 이 호족공동체는 더 이상 신라 지배계급의 수탈의 대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小宇宙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들은 농업생산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전통적인 休閒農法보다 한 단계 발전한 常耕農法을 실현함으로써 보다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⁹⁴ 이와 같은 상황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한동안 유지되었다.

⁹⁰ 李喜寬, 「統一新羅 土地制度的 特質: 특히 國家의 農民支配의 측면에서」, 『新羅文化』 13(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1996); 同著, 『統一新羅土地制度研究』(一潮閣, 1999), pp. 255-259 참조.

⁹¹ 889년의 납세거부운동의 배경이나 의미 등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은 洪承基, 「後三國의 分열과 王建에 의한 통일」, 『韓國史市民講座』 5(一潮閣, 1989), pp. 65-67; 李喜寬, 앞의 책, pp. 255-262 참조.

⁹² 洪承基, 앞의 글, p. 67.

⁹³ 豪族共同體의 성격과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李喜寬, 앞의 책, pp. 262-264 참조.

⁹⁴ 李喜寬, 「村主位田·畝과 村主勢力의 成長」, 『國史館論叢』 39(國史編纂委員會, 1992); 同著, 앞의 책(1999), pp. 203-206; 同著, 앞의 책, pp. 262-263 참조.

이렇게 보아오고 나면, 극심한 정치적·사회적 혼란기로 이해되어 온 10세기 2/4분기 경에 한반도의 중서부지방과 남서부지방에서 많은 자본과 전혀 새로운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제작이 가능한 新素材인 청자의 생산에 눈을 돌리고, 나아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원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시기는 지배계급의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피지배계급인 지방의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배계급의 총체적 수탈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活力的이던 때였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때는 지배계급이 모여 살던 中央보다는 오히려 지방사회가 에너지가 넘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주체들이 國家가 아닌, 호족공동체를 이끌던 호족들이었던 것은 그러한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⁹⁵ 요컨대 10세기 2/4분기경에 우리나라에서 청자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지방사회의 커다란 변화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 주제어: 初期靑磁, 해무리굽碗, '先해무리굽碗', 玉璧底碗, 玉環底碗, 墊圈

⁹⁵ 중서부지방의 초기청자요가 호족들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점은 李喜寬, 앞의 글(2002), p. 264를, 남서부지방의 경우도 그와 마찬가지로였다는 점은 李喜寬, 앞의 글(2002 게재예정)의 제Ⅲ장 初期靑磁 生産體制와 그 成立을 참조.

ABSTRACT

Characteristics of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日暈底碗) for the Early Celadon in Korea

For Solving the Problem of the Period When the Celadon Started to be
Produced in Korea

Lee Hee-gwan

Production of the early celadon in Korea was directly influenced by the Yue kiln (越州窯) in China. It is well proved in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日暈底碗). Many scholars considered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found in the early celadon in Korea similar to the bowl with a doughnut shaped foot (玉璧底碗) found in the Yue kiln. Both the bowls are consistent in that width of a foot is relatively wider than that of general circle-shape foot (輪形底), however, they are greatly different in bowl shape or production technique. The bowl closely related to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that was the earliest produced in Korea is not the bowl with a doughnut shaped foot in the Yue kiln but bamboo hat shaped bowl (斗笠形碗) with a jade bracelet shaped foot (玉環底).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of Korea had changed from one with narrower width of a foot to one with wider width of a foot. This development of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is contrary to the bowl with a doughnut shaped foot in the Yue kiln. This fact implies an essential characteristic of the development of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although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was produced under the direct influence by the Yue kiln, at least in the aspect of width of a foot, then it had been developed originally without special affection from the Yue kiln.

This evolvement of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provides a clue on the time of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celadon. Looking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which is round carved on the inner foot and has wider width of a foot, and the bowl with a doughnut shaped foot in the Yue kiln by many scholars till now is nearly meaningless. In fact, both the bowls have no special relation. What we have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in relation to the time of the appearance of the Korean celadon is the relation between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which was the earliest produced in Korea and whose width of a foot is narrower than that of the doughnut shaped foot and the bamboo hat shaped bowl with a jade bracelet shaped foot in the Yue kiln,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in the view of bowl shape, production technique and width of a foot. That is to say, the primary task for finding the time of the appearance of Korean celadon is to examine and compare both the bowls, and find, according to the time of production, the bamboo hat shaped bowl with a jade bracelet shaped foot in the Yue kiln is the most similar to the bowl with a halo shaped foot first produced in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I think that the Korean celadon started to be produced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10th century.